

축산물 수급 동향과 전망

우병준* · 이형우** · 김원태*** · 이정민**** · 김형진***** · 남경수*****

종합

1. 한육우

- 1.1. 한육우 사육과 쇠고기 수급 동향
- 1.2. 쇠고기 교역여건 전망
- 1.3. 한육우 사육과 쇠고기 수급 전망

2. 젓 소

- 2.1. 젓소 사육과 원유 수급 동향
- 2.2. 유제품 교역여건 전망
- 2.3. 젓소 사육과 원유 수급 전망

3. 돼 지

- 3.1. 돼지 사육과 돼지고기 수급 동향
- 3.2. 돼지고기 교역여건 전망
- 3.3. 돼지 사육과 돼지고기 수급 전망

4. 산란계

- 4.1. 산란계 사육과 계란 수급 동향
- 4.2. 산란계 사육과 계란 수급 전망

5. 육 계

- 5.1. 육계 사육과 닭고기 수급 동향
- 5.2. 닭고기 교역여건 전망
- 5.3. 육계 사육과 닭고기 수급 전망

6. 오 리

- 6.1. 오리 사육과 오리고기 수급 동향
- 6.2. 오리고기 교역여건 전망
- 6.3. 오리 사육과 오리고기 수급 전망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bjwoo@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lhw0906@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wtkim@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fantom99@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junjang00@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ksnam@krei.re.kr

종 합

- 축산업 생산액은 2000년 8조 8백억 원에서 2010년 17조 5천억 원으로 연평균 8.0% 증가하였다. 농업 생산액 중 축산업의 비중은 2000년 25.3%에서 2010년 41.9%로 증가하였다.
- 2010년 축산업 생산액 중 한육우는 27.8%, 돼지는 30.5%, 우유는 9.7%, 육계는 12.3%, 계란은 7.7%, 오리는 7.5%를 차지하였다.

표 26-1. 농업 생산액 중 축산업 비중

단위: 10억 원(정상가격), %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농 업	31,968	35,089	35,232	34,685	38,470	41,364	41,677
축 산	8,082	11,767	11,676	11,277	13,593	16,484	17,471
한육우	1,879	3,148	3,274	3,478	3,548	4,095	4,863
우 유	1,352	1,551	1,521	1,551	1,604	1,738	1,693
돼 지	2,372	3,759	3,609	3,320	4,085	5,473	5,323
육 계	821	1,113	1,330	1,028	1,429	2,023	2,146
계 란	651	1,085	867	854	1,159	1,359	1,341
오 리	474	649	648	582	1,154	1,232	1,306
기 타	533	462	427	465	614	563	799
축 산/농업	25.3	33.5	33.1	32.5	35.3	39.9	41.9
한육우/축산	23.2	26.8	28.0	30.8	26.1	24.8	27.8
우 유/축산	16.7	13.2	13.0	13.8	11.8	10.5	9.7
돼 지/축산	29.3	31.9	30.9	29.4	30.1	33.2	30.5
육 계/축산	10.2	9.5	11.4	9.1	10.5	12.3	12.3
계 란/축산	8.1	9.2	7.4	7.6	8.5	8.2	7.7
오 리/축산	5.9	5.5	5.5	5.2	8.5	7.5	7.5
기 타/축산	6.6	3.9	3.7	4.1	4.5	3.4	4.6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물주요통계」

표 26-2. 축종별 사육 마리수와 산지가격 전망

축 종	품 목	2011	2012	2017	2022
한육우	사육 마리수(만 마리)	295	279~289	253~258	249~250
	한우 지육가격(원/kg)	12,782	11,630~12,069	12,739~13,040	13,612~13,617
낙농	사육 마리수(만 마리)	404	413	409	389
	생산량(만톤)	189	192	190	185
돼지	사육 마리수(만 마리)	758	884	975	999
	지육가격(원/kg)	5,808	4,669	4,495	4,652
산란계	사육 마리수(만 마리)	6,134	6,290	6,538	6,592
	산지가격(원/특란10개)	1,361	1,170	1,204	1,345
육계	사육 마리수(만 마리)	8,424	8,718	9,359	9,682
	산지가격(원/생체kg)	1,857	1,729	2,037	2,283
오리	사육 마리수(만 마리)	1,224	1,296	1,398	1,478
	산지가격(원/생체3kg)	7,527	6,000~6,200	7,569	8,326

주: 1) 2011년은 추정치이며, 2012년 이후는 전망치임.

2) 한육우 및 젓소 사육 마리수는 해당 연도 12월 1일자 기준이며, 이외 축종의 사육 마리수는 연평균임.

□ 한육우

- 도축 마리수가 크게(전년 대비 17%) 증가하여 2011년 한육우 사육 마리수는 2010년(292만 마리)보다 1% 증가한 295만 마리에 그쳤다. 정액판매량이 감소하고 송아지 가격 약세로 농가의 번식의향이 위축되어 2012년 한육우 사육 마리수는 2011년보다 2% 감소한 289만 마리로 전망된다.
- 정부가 추진하는 암소 감축 10만 마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2013년까지 20만 마리 감축) 2012년 사육 마리수는 2011년보다 6% 감소한 279만 마리로 전망된다.
- 도축 마리수 증가로 2012년 국내 쇠고기 생산량은 2011년보다 18% 증가한 25만 5천 톤으로 전망된다. 한우고기 공급량 증가로 한우 도매가격은 2011년(12,782원)보다 6% 하락한 12,069원으로 전망된다. 암소 감축물량이 시장에 추가적으로 공급될 경우 2012년 한우 도매가격 하락 폭은 확대될 수 있다.

□ 젓소

- 2011년 농가 쿼터량 확대와 원유 수취가격 인상으로 농가의 사육의향이 고무되어 2012년 젓소 사육 마리수는 전년보다 2.2% 증가한 41만 3천 마리로 예상된다.
- 젓소 사육 마리수 증가에 따라 2012년 원유 생산량은 1.5% 증가한 192만 톤으로 전망된다.

□ 돼지

- FMD 이후 지속적인 모든 재입식으로 2011년 12월 돼지 사육 마리수는 817만 마리까지 회복되었으나, 연평균 돼지 사육 마리수는 2010년보다 22.8% 감소한 758만 마리였다. 순조로운 모든 재입식으로 사육 마리수 증가세가 이어져 2012년 9월에는 900만 마리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2년 연평균 사육 마리수는 884만 마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사육 마리수 증가로 2012년 돼지고기 생산량은 2011년보다 19.3% 증가한 68만 7천 톤으로 전망된다. 공급량이 증가하여 돼지 탕박 기준 지육가격은 2011년보다 14% 내외 하락한 4,600원/kg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산란계

- 산란 종계 입식 마리수 증가로 2012년 산란계 사육 마리수는 전년 대비 2.5% 증가한 6,290만 마리로 전망된다. 향후 2013~2022년 산란계 사육 마리수는 계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계란 생산량 증가로 2012년 계란 산지가격은 전년보다 크게 하락한 1,170원(특란 10개)으로 전망된다. 2013년까지는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세가 예상된다.

□ 육계

- 종계 입식 마리수 증가로 2011년 평균 육계 사육 마리수는 2010년 대비 4.2% 증가한 8,424만 마리였다. 장기적으로 사육 마리수의 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증가율은 점차 둔화될 전망이다.

- 2012년 닭고기 1인당 소비량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공급 증가의 영향으로 산지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육계 산지가격은 2011년보다 6.9% 하락한 1,729원/kg으로 전망된다.

□ 오리

- 2011년초 종오리 매물로 인한 일시적인 병아리 공급부족으로 상반기 오리 산지가격이 급상승하였으나, 오리 사육 마리수가 크게 늘어 공급 확대에 따른 가격 약세 상황이 하반기 내내 지속되었다.
- 가격 약세에도 불구하고 2011년 종오리 사육이 증가하여 2012년 오리 사육 마리수는 전년보다 5.9% 증가한 1,296만 마리로 전망되며, 공급량 증가로 산지가격은 전년보다 19% 하락한 6,000~6,200원/3kg으로 전망된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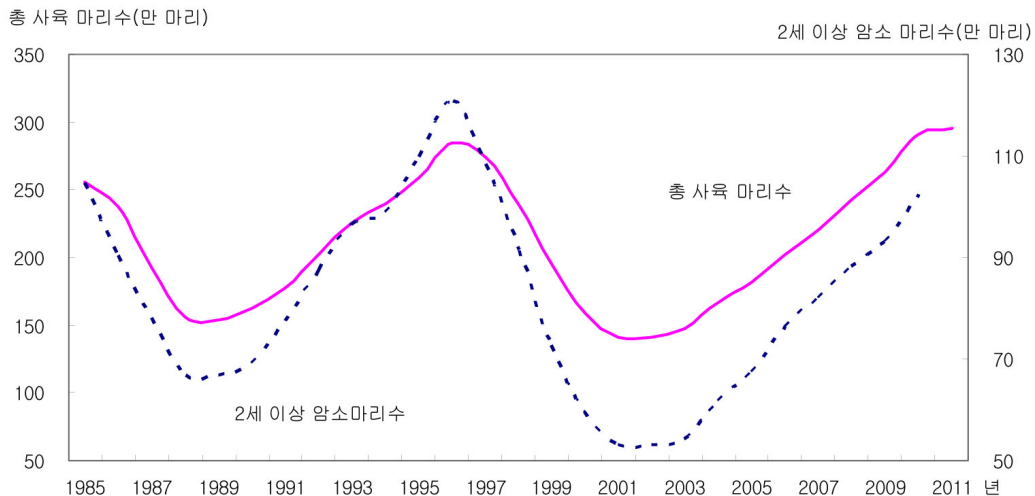
한육우

1.1. 한육우 사육과 쇠고기 수급 동향

1.1.1. 사육 동향

- 한육우 사육 마리수는 1996년에 284만 마리를 기록한 이후 외환위기, 시장 개방 등으로 2001년에는 140만 6천 마리까지 감소하였다. 쇠고기 소비 증가로 2002년 이후 한육우 사육 마리수는 연평균 8.5%씩 증가하여 2011년 12월 295만 마리로 2010년보다 1.0%(3만 마리) 증가하였다.

그림 26-1. 한육우 사육 마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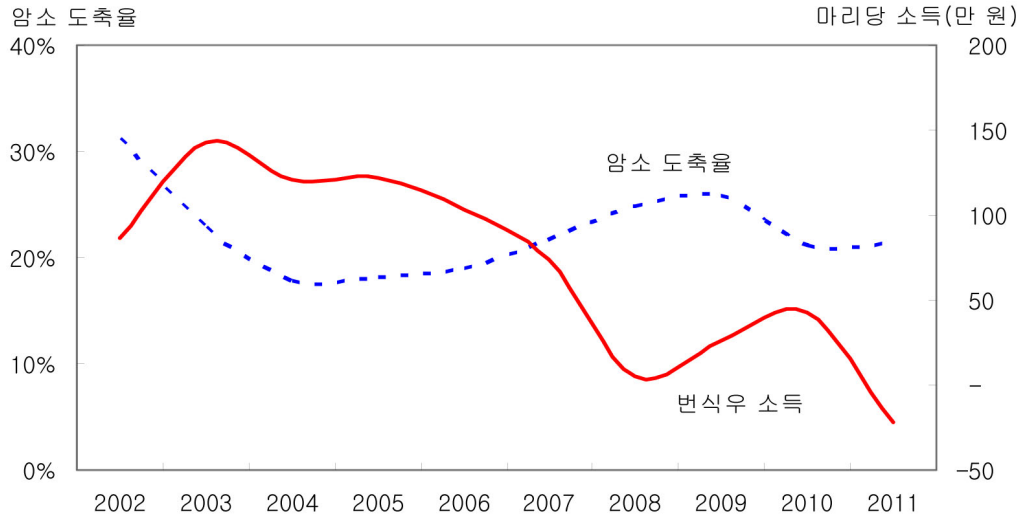


주: 매년 12월 1일 기준 자료임.

자료: 통계청, 「가축동향」.

- 2003년 이후 번식우 소득이 감소하면서 암소 도축율은 꾸준히 증가했으나, 2008~2010년 기간 번식우 소득이 증가하면서 2009~2010년에는 암소 도축율이 낮아졌다. 송아지 가격이 약세를 보인 2011년에는 번식우 농가 소득이 2010년보다 감소하여 암소 도축율이 다시 소폭 상승하였다.

그림 26-2. 암소 도축율과 번식우 마리당 소득 추이



주 1) 암소도축율 = $\frac{\text{전년도 1세 이상 암소 중 올해 도축된 마리수}}{\text{전년도 1세 이상 암소마리수}}$

2) 2011년 번식우 마리당 소득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 쇠고기 등급별 시장차별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가격 하락국면에는 비육우 소득도 등급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2011년 비육우 2등급 이하는 부(負)의 소득을 보였으며, 1+등급과 1++등급간 소득격차는 마리당 74만 원 이상, 3등급과 1++등급 간에는 318만 원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3. 2011년도 비육우 등급별 소득 추정(600kg기준)

단위: 천 원

	1++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 조수입	6,002	5,254	4,751	3,752	2,818
• 경영비	4,582	4,582	4,582	4,582	4,582
- 가축비	1,969	1,969	1,969	1,969	1,969
- 사료비	2,169	2,169	2,169	2,169	2,169
- 기타비	444	444	444	444	444
• 소득	1,420	672	169	-830	-1,764

주: 1) 2011년 조수입은 당해년 등급별 경락가격을 지육율(59%)를 이용해 600kg 기준으로 환산한 수치임.

2) 2011년 가축비는 2008년 4월~2010년 3월 수송아지 평균가격임.

3) 2011년 사료비는 사료구입지수 증감율을 적용하였으며, 기타비용은 물가상승률을 적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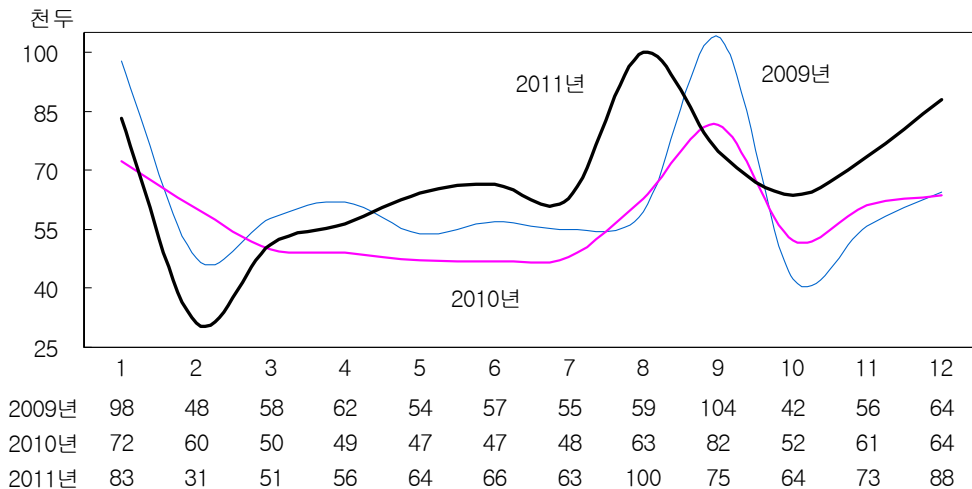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농협중앙회.

1.1.2. 수급 동향

가. 공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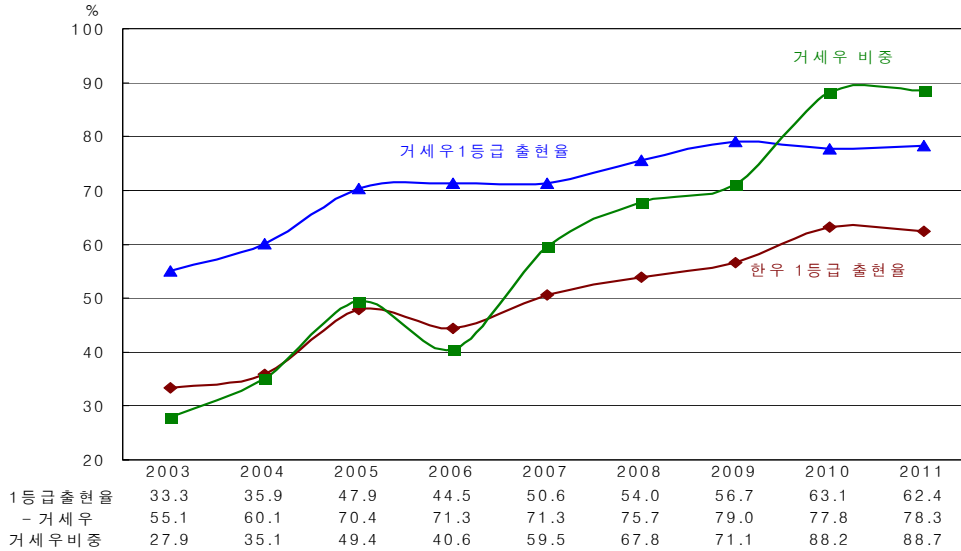
- FMD 발생으로 인한 이동제한으로 2011년 2월까지 출하가 지연되면서 소 사육 기간이 연장되었다. 또한 고급화 추세가 지속되면서 2010년에 출하되어야 할 물량이 2011년으로 이월되어 도축 마리수가 2010년(69만 4천 마리)보다 17.4% 증가한 81만 5천 마리를 기록하였다. 이중 한우 암소 도축은 29만 5천 마리(전년 대비 12.0% 증가), 수소는 42만 6천 마리(25.4% 증가), 육우는 9만 4천 마리(2.9% 증가)였다.
- 도축 마리수 중 거세우 비중은 2010년의 88.2%에서 2011년 88.7%로 0.5%p 상승하였다. 거세우 비중 상승에도 불구하고 암소 도축이 증가하여 1등급 출현율은 2010년 63.1%에서 2011년 62.4%로 0.7%p 하락하였다.

그림 26-3. 한육우 도축 마리수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그림 26-4. 한우 1등급 이상 출현율과 거세우 비중



주: 거세우 비중=거세우/(비거세우+거세우)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 2011년에는 미국, 호주 등 주요 수출국들이 자국산 쇠고기 이미지 광고 등의 적극적인 프로모션을 진행하였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이 2010년보다 18.4% 증가하여 2011년 쇠고기 총수입량은 2010년보다 크게(18.1%) 증가한 28만 9천 톤이었다.
- 국가별로는 호주산 14만 5천 톤(점유율 50%), 미국산 10만 7천 톤(37%), 뉴질랜드산 3만 3천 톤(12%), 기타산 4천 톤(1%)이 수입되었다.
- 2011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2010년보다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2003년(22만 톤)과 비교하면 아직은 절반 이하 수준이다. 이는 수입 쇠고기 시장에서 호주산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과거 수준만큼 시장 점유율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26-4. 국별 쇠고기 수입(검역 기준)

단위: 천 톤(%)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기타		합계	
2004년	0	0	86	(65)	0	0	46	(35)	1	(1)	133	(100)
2005년	0	0	101	(71)	0	0	39	(27)	2	(2)	143	(100)
2006년	0	0	137	(76)	0	0	40	(22)	3	(2)	179	(100)
2007년	15	(7)	148	(73)	0	0	38	(19)	3	(1)	203	(100)
2008년	53	(24)	130	(58)	0	0	37	(17)	3	(1)	224	(100)
2010년	50	(25)	117	(59)	0	0	30	(15)	1	(1)	198	(100)
2011년	107	(37)	145	(50)	0	0	33	(12)	4	(1)	289	(100)

주: ()안은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

- 도축 마리수 증가로 2011년 국내 쇠고기 생산량은 2010년보다 16.2% 증가한 21만 6천 톤으로 추정된다. 쇠고기 수입량 또한 전년보다 18.0% 증가한 28만 9천 톤이었다. 이에 따라 쇠고기 총 공급은 2010년보다 17.1% 증가한 50만 5천 톤으로 추정된다.
- 국내산 쇠고기 생산량과 쇠고기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여 2011년 1인당 쇠고기 소비량은 전년보다 크게(21.2%) 증가한 10.7kg으로 추정된다.

표 26-5. 쇠고기 수급

단위: 천 톤(정육 기준)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²⁾
공급	전년 이월	50	28	35	40	-	-	-
	생산	152	158	171	174	198	186	216
	수입	143	179	203	224	198	245	289
	계	345	366	409	438	396	431	505
수요	국산소비량	152	158	171	174	198	186	216
	수입소비량	164	172	198	191	198	245	289
	차년 이월	28	35	40	73	-	-	-
	계	345	366	409	438	396	431	505
총소비량		317	331	369	365	396	431	505
자급률(%) ¹⁾		48.1	47.8	46.4	47.6	50.0	43.2	42.8
1인당 소비량(kg)		6.7	6.8	7.6	7.5	8.1	8.8	10.7

주: 1) 자급률 = $\frac{\text{국내산 쇠고기 소비량}}{\text{쇠고기 총소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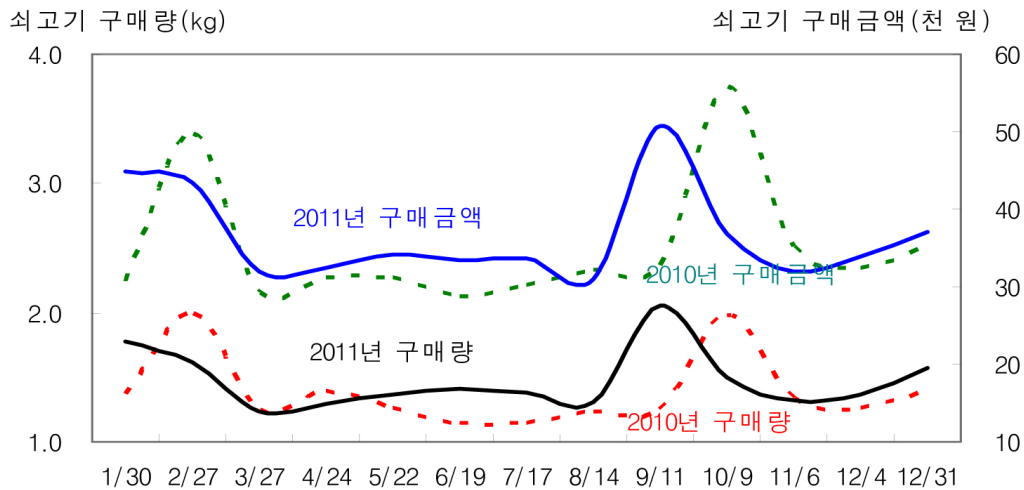
2) 2011년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추정치.

자료: 농림수산물식품부.

나. 수요 동향

- 2011년 소비자의 가정내 4주 평균 쇠고기 구매량은 1.48kg으로 전년(1.39kg)보다 6.6% 증가하였다.
- FMD가 진정된 4월 이후 4주 평균 쇠고기 구매량은 전년(1.34kg)보다 8.6% 증가한 1.46kg로 나타났다. 이는 업계의 대규모 할인행사가 가정내 쇠고기 소비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림 26-5. 소비자 가구당 평균 쇠고기 구매량 및 구매 금액



자료: Kantar Worldpanel Korea.

- 2012년 1월(6~9일)에 실시한 소비자 조사 결과, 미국산 쇠고기를 구매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2011년 48.0%에서 2012년에는 52.3%로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6. 미국산 쇠고기 구매경험 조사

단위: 명(%)

연도	구입경험 있음	구입경험 없음	총계
2010년	169(22.1)	595(77.9)	764(100)
2011년	336(48.0)	364(52.0)	700(100)
2012년	357(52.3)	326(47.7)	683(100)

주: 2010년 12월, 2011년 2월, 2012년 1월 조사 결과임.
자료: 농업관측센터 소비자 조사.

- 미국산 쇠고기 구입 시 어떤 육류의 소비량을 줄일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소비자의 29.9%는 한우고기를, 41.4%는 호주산 쇠고기를 줄일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그 외 돼지고기 11.8%, 닭고기 1.2%, 줄일 생각 없음이 15.6%로 나타났다. 호주산 쇠고기를 줄이겠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보아 수입육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표 26-7. 미국산 쇠고기 구매시 타육류 소비 감소 의향 변화

단위: 명(%)

구분	한우고기	호주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줄일 생각 없음	총계
2010년	30(18.0)	79(47.3)	22(13.2)	6(3.6)	30(18.0)	167(100)
2011년	97(35.5)	101(37.0)	21(7.7)	5(1.8)	49(17.9)	273(100)
2012년	96(29.9)	133(41.4)	38(11.8)	4(1.2)	50(15.6)	321(100)

자료: 농업관측센터 소비자 조사.

- 한우 및 수입 쇠고기의 등심에 대한 구매의향 금액(WTP)을 조사한 결과, 500g당 구매의향 금액은 한우 1등급 등심(냉장) 15,914원, 미국산 등심(냉동)은 5,242원, 호주산 등심(냉동)은 6,000원으로 조사되었다.
- 갈비에 대한 지불의향 금액 조사 결과, 500g당 구매의향 금액은 한우 갈비 12,733원, 미국산 갈비(냉동)는 5,877원, 호주산 갈비(냉동)는 7,250원으로 나타났다.
- 한우 및 수입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지불의향 금액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 1월 소비자 조사 결과에서는 2011년 2월에 비해 한우고기 등심 및 갈비 지불의향이 수입 쇠고기보다 크게 나타났으나 그 격차가 다소 좁혀졌다.

표 26-8. 한우고기 및 수입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지불의향 금액 추이

단위: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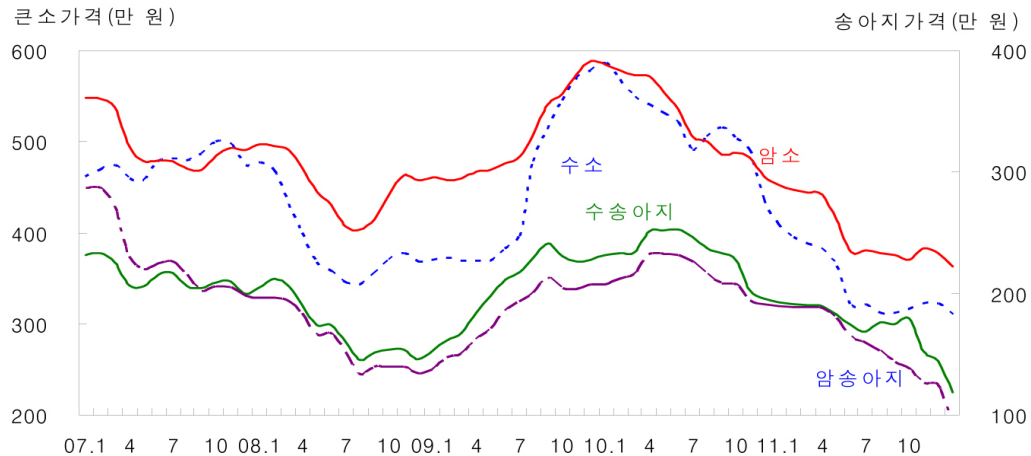
구분	등심			갈비		
	2010년 12월	2011년 2월	2012년 1월	2010년 12월	2011년 2월	2012년 1월
한우고기/미국산	3.40	3.16	3.04	2.85	2.28	2.17
한우고기/호주산	2.72	2.71	2.65	2.17	1.95	1.76

자료: 농업관측센터 소비자 조사.

1.1.3. 가격 동향

- 2009년 12월(589만 원)을 정점으로 한우 암소 산지가격은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였다. 2011년 한우(600kg 기준) 암소 산지가격은 379만 원(2010년보다 27.9% 하락), 4~5개월령 수송아지 169만 원(29.3% 하락), 암송아지 145만 원(33.3% 하락)이었다.
- 2011년 한우 산지가격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인 것은 연초 FMD 발생과 한우 산업 장기 불황 가능성에 따른 불안 심리로 소 입식의향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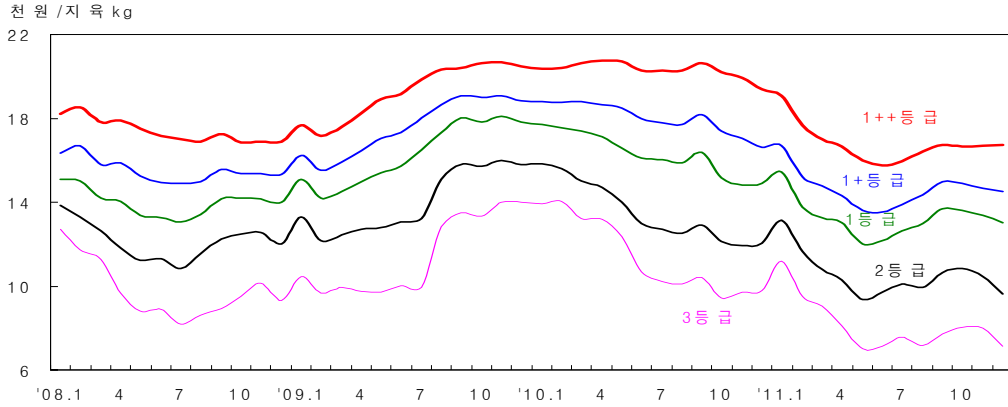
그림 26-6. 한우 산지가격



주: 한우 산지가격은 명목가격임.
자료: 농협중앙회, 「축산물가격정보」.

- 2011년 1++등급 도매시장 경락가격은 16,701원(지육kg)으로 전년보다 17.7%, 1+등급은 14,618원으로 18.4%, 1등급은 13,219원으로 18.4% 하락하였다. 2등급(10,440원)과 3등급(7,841원)의 가격 하락폭은 전년 대비 20~32%로 나타났다.
- 가격 하락 국면에서는 등급이 낮을수록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다. 도매시장보다 산지가격(우시장) 하락폭이 크게 나타난 것은 상대적으로 등급이 낮은 큰 소가 산지시장에서 거래되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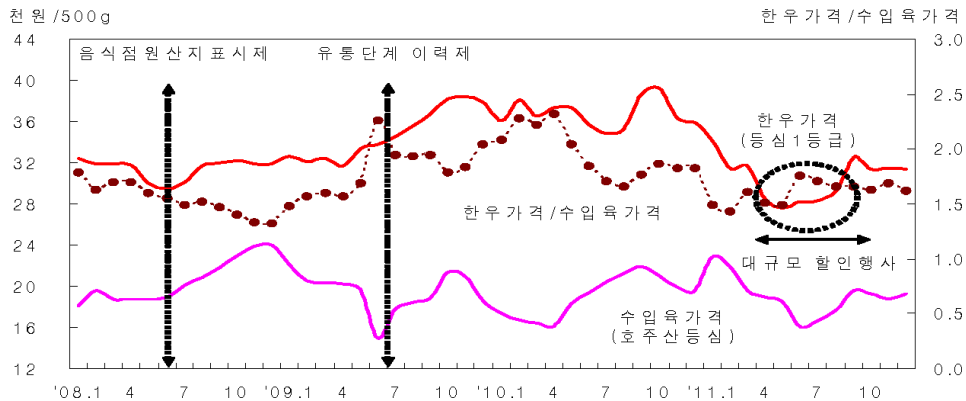
그림 26-7. 도매시장 경락가격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 한우 도축이 증가하고 대규모 할인행사로 인해 1등급 한우 등심 가격은 30,465원/500g으로 전년보다 17.2% 하락하였다. 반면, 수입육(호주산 냉장 등심) 가격은 환율 영향으로 19,082원으로 전년보다 0.2% 상승하였다.
- 한우 등심 가격 하락과 수입(호주) 쇠고기 가격 상승으로 한우 고기와 호주산(냉장) 쇠고기 평균 가격비는 전년(1.93배)보다 감소한 1.60배로 나타났다.

그림 26-8. 한우 고기와 호주산 쇠고기 소비자 가격



주: 한우 등심 1등급과 호주산 냉장 등심의 소비자가격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1.2. 쇠고기 교역 여건 전망

- 2011년 세계 쇠고기 생산량은 2010년보다 0.3% 감소한 5,685만 톤으로 추정된다. 최대 생산국인 미국의 쇠고기 생산량 감소로 2012년에는 2011년보다 0.1% 감소한 5,680만 톤으로 전망된다.
- 아시아 시장의 쇠고기 수요 증가로 2011년 미국의 쇠고기 수출량은 2010년보다 19% 증가한 124만 톤이었다. 지난 2년 동안 암소 도축이 증가하여 2012년 미국의 쇠고기 생산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2012년 미국의 쇠고기 수출량은 2011년보다 0.7% 증가에 그친 125만 톤으로 전망된다. 호주는 동남아시아로의 수출 증가가 예상되어 2011년보다 2.2% 증가한 138만 톤, 뉴질랜드는 0.6% 증가한 50만 톤으로 예상된다(USDA).
- 수입단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관세 인하와 환율 하락이 예상되어 2012년 미국산 쇠고기(냉동)의 kg당 도매 원가는 2011년보다 0.9% 하락한 8,303원으로 예상된다. 호주산 쇠고기의 kg당 도매 원가도 2011년보다 0.9% 상승한 7,487원으로 전망된다.

표 26-9. 수입 쇠고기 가격 전망

	2011		전 망			
			2012	2013	2017	2022
환율 ¹⁾ (원/US\$)	1,102		1,092	1,025	986	991
수입단가 ²⁾ (\$/kg)	미국	5.06	5.16	5.26	5.49	5.61
	기타 ³⁾	4.49	4.57	4.66	4.86	4.97
관세율 ⁴⁾ (%)	미국	40.0	37.3	34.7	24.0	10.7
	기타	40.0	40.0	40.0	40.0	40.0
도매원가 ⁵⁾ (원/kg)	미국	8,375	8,303	7,808	7,251	6,708
	기타	7,418	7,487	7,170	7,189	7,386

주: 1) 환율은 Global Insight 전망치를 이용함.

2) 2011년 수입 단가는 관세청 수입 실적을 이용하여 계산함. 2012년 이후 수입 단가는 미국 FAPRI 2011 전망치를 이용하여 CIF 기준가격으로 환산함.

3) 기타 국가의 경우 수입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호주산 쇠고기의 수입 단가를 적용함.

4) 관세율에 대한 가정은 2012년 한·미 FTA가 이행되어 미국산 쇠고기 관세율 40%를 15년에 걸쳐 철폐함.

5) 도매원가는 국제가격에 환율, 관세, 부대비용과 이윤(10%) 등을 포함한 가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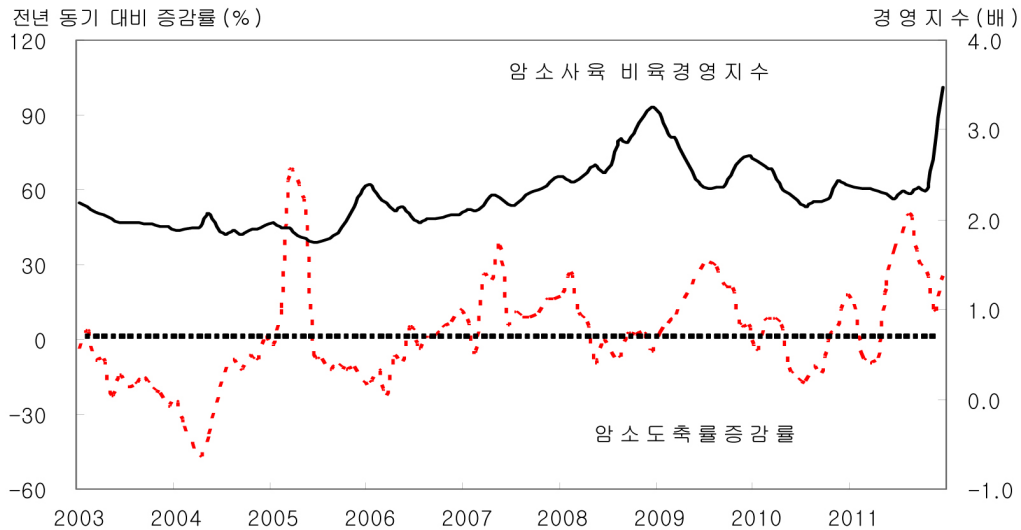
- 한·미 FTA 타결 내용이 발효된다고 가정할 경우, 미국산 쇠고기의 관세율이 낮아지면서 호주 및 기타 국가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1.3. 한육우 사육과 쇠고기 수급 전망

1.3.1. 한육우 사육의향 변화

- 2011년 한우 정액 판매량은 전년보다 1.7% 감소한 219만 스트로우였다. 따라서 2012년 송아지 생산 마리수는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암소사육 비육경영지수의 하락(상승)은 송아지 생산이 도축보다 경제적으로 유리(불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1년 하반기 암소사육 비육경영지수는 상승세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2012년 사육 마리수는 2011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6-9. 암소사육 비육경영지수



주: 암소사육 비육경영지수 = $\frac{\text{월별 암소(600kg) 산지가격}}{\text{월별 송아지 산지가격}}$

1.3.2. 쇠고기 수급 전망

가. 시나리오 구성

- 한육우 사육 마리수 증가로 한우 업계 불황이 장기화될 것을 우려하여 정부는 소비 촉진 행사와 병행하여 향후 2년에 걸쳐 암소 20만 마리를 감축하기로 하였다.
- 전망을 위한 기본안은 암소 감축이 없는 경우이며, 시나리오 I 은 암소 감축 목표물량의 50% 달성을 가정하였다(2년에 걸쳐 10만 마리). 시나리오 II는 암소 감축 목표물량을 100% 달성하는 것을 가정하였다(2년에 걸쳐 20만 마리).
 - 2011년 9월 통계청 가축동향의 1세 미만 암소, 1~2세 미만 암소, 가임암소 구성비를 고려하여 암소 감축 마리수 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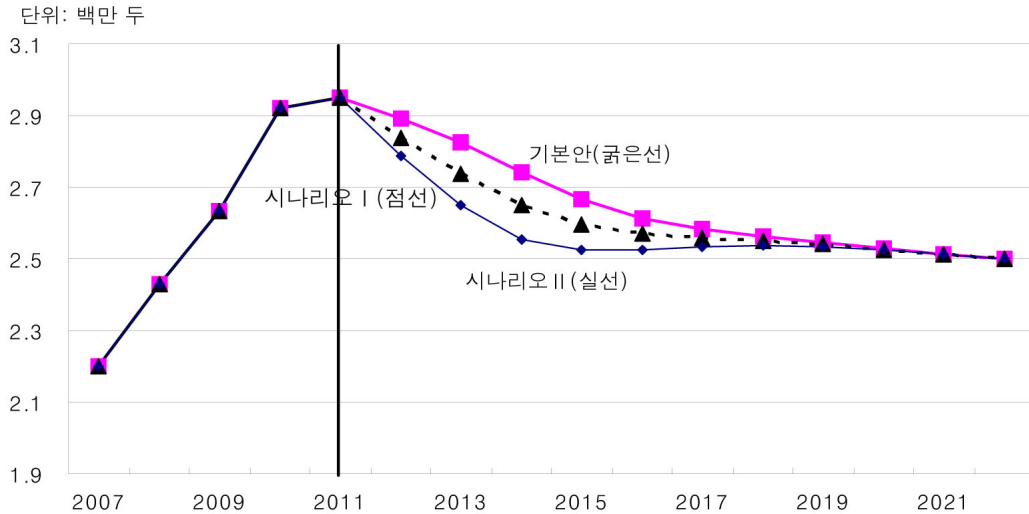
표 26-10. 암소감축 시나리오별 가정

		주요 내용
기본안		• 암소감축 없는 경우
시나리오	I	• 암소감축 목표물량 50% 달성: 2012년 5만 마리, 2013년 5만 마리
	II	• 목표물량 100% 달성: 2012년 10만 마리, 2013년 10만 마리

나. 한육우 사육 마리수와 도매시장 가격 전망

- 2012년 한육우 사육 마리수는 289만 마리로 2011년(295만 마리)보다 2.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번식의향이 감소함에 따라 2012년부터 사육 마리수가 감소하여, 2013년 283만 마리, 2017년 258만 마리, 2022년 250만 마리로 전망된다(기본안).
- 2년에 걸쳐 암소 감축 10만 마리가 달성될 경우(시나리오 I) 2012년 한육우 사육 마리수는 2011년보다 3.8% 감소한 284만 마리, 2013년은 274만 마리로 예상된다. 암소 감축이 2년 동안 20만 마리 모두 달성될 경우(시나리오 II) 2012년 한육우 사육 마리수는 2011년보다 5.5% 감소한 279만 마리, 2013년은 265만 마리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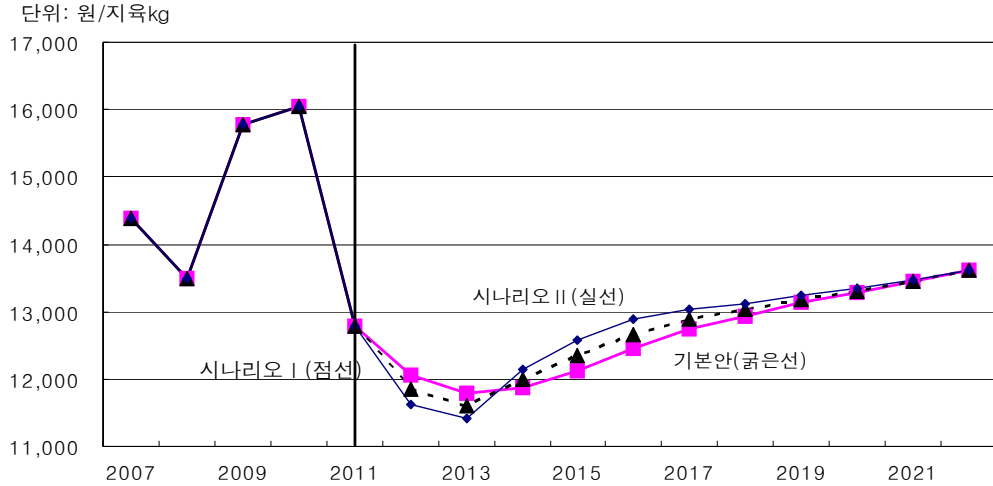
그림 26-10. 한육우 사육 마리수 전망



주: 사육 마리수는 각 년도 12월 1일자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망치(KREI-KASMO 2011).

- 암소 감축 실적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한육우 사육 마리수 감소 추세는 2016~17년에 저점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 국내산 쇠고기 공급량 증가로 2012년 전국 평균 한우 도매가격(원/kg)은 2011년 12,782원(459만 원/600kg 환산)보다 5.6% 하락한 12,069원(434만 원)으로 전망된다. 또한 2013년에는 11,781원(423만 원), 2017년 12,739원(458만 원), 2022년 13,612원(489만 원)으로 전망된다(기본안).
- 적용된 시나리오에서는 감축된 암소고기 물량이 시장에 공급되는 것을 가정하였다. 시나리오 I의 경우 2012년 전국 평균 한우 도매가격은 2011년 12,782원(459만 원)보다 7.3% 하락한 11,847원(426만 원), 2013년은 11,601원(417만 원)으로 전망된다. 시나리오 II의 경우 2012년 도매가격은 2011년보다 9.0% 하락한 11,630원(418만 원), 2013년은 11,425원(411만 원)으로 전망된다.
- 암소 감축으로 국내산 쇠고기 공급량이 늘어 가격은 당분간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암소 감축이 마무리된 2014년 이후 한우 도매가격은 기본안(암소 감축이 없는 경우)보다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6-11. 도매시장 가격 전망



주: 도매시장 가격은 명목가격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망치(KREI-KASMO 2011).

다. 쇠고기 수급 전망

- 도축 마리수 증가로 2012년 국내 쇠고기 생산량은 2011년보다 18.1% 증가한 25만 5천 톤으로 전망된다. 2013년은 26만 8천 톤, 2017년에는 25만 3천 톤, 2022년에는 24만 9천 톤으로 전망된다(기본안).
- 한·미 FTA 등으로 쇠고기 수입량도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12년 1인당 쇠고기 소비량은 11.1kg으로 예상되며, 2013년에는 11.6kg, 2017년 12.1kg, 2022년 12.7kg으로 전망된다(기본안).
- 암소 감축에 따른 추가적인 도축 마리수 증가를 적용한 시나리오 I의 경우 2012년 국내 쇠고기 생산량은 2011년보다 23.4% 증가한 26만 7천 톤으로 전망된다. 2013년은 27만 6천 톤, 2017년에는 24만 7천 톤, 2022년에는 24만 9천 톤으로 전망된다.
- 시나리오 II의 경우 2012년 국내 쇠고기 생산량은 2011년보다 28.7% 증가한 27만 9천 톤으로 전망된다. 2013년은 28만 5천 톤, 2017년에는 23만 9천 톤, 2022년에는 24만 9천 톤으로 전망된다.

표 26-11. 쇠고기 수급 및 가격 전망

단위: 천 톤(정육 기준)

		2011 (추정치)	전망			
			2012	2013	2017	2022
기본 안	생 산	216	255	268	253	249
	수 입	289	272	277	309	336
	1인당소비(kg)	10.7	11.1	11.6	12.1	12.7
	한우지육가격(원/kg)	12,782	12,069	11,781	12,739	13,612
시 나 리 오 Ⅰ	생 산	216	267	276	247	249
	수 입	289	267	272	312	336
	1인당소비(kg)	10.7	11.2	11.7	12.0	12.7
	한우지육가격(원/kg)	12,782	11,847	11,601	12,888	13,613
시 나 리 오 Ⅱ	생 산	216	279	285	239	249
	수 입	289	262	268	316	337
	1인당소비(kg)	10.7	11.4	11.8	12.0	12.7
	한우지육가격(원/kg)	12,782	11,630	11,425	13,040	13,617

주: 한우 도매시장 경락가격 기준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망치(KREI-KASMO 2011).

2 젖소

2.1. 젖소 사육과 원유 수급동향

2.1.1. 사육 동향

- 2002년 이후 시행된 원유 감산정책과 수익성 저하에 따른 농가 폐업 증가로 젖소 사육 마리수는 감소세를 보여 왔다. 또한 2010년 말 FMD 발병에 따른 매몰 처분(36,397마리)으로 젖소 사육 마리수 감소폭이 더 증가하였다. 그러나 FMD 종료 이후 2011년 6월부터 사육 마리수는 소폭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 2011년 12월 젖소 사육 마리수는 40만 4천 마리로 전분기와 동일(전년 대비 6.0% 감소)하였으며, 가임 암소 마리수는 전분기 대비 0.4% 증가(전년 대비 4.4% 감소)한 28만 3천 마리였다.
- 젖소 사육 농가수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규모화가 진전됨에 따라 호당 사육 마리수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1년 12월 젖소 사육 농가수는 6,100호로 2010년 12월보다 200가구(3.2%)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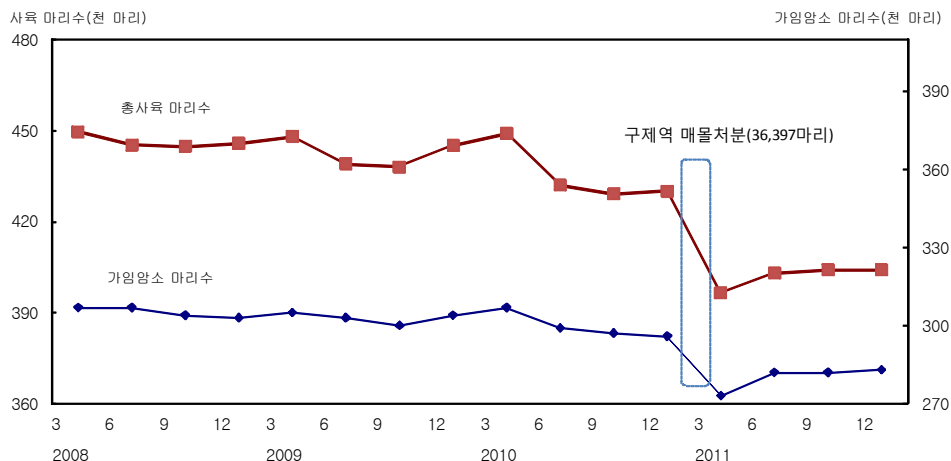
표 26-12. 젖소 사육 동향

단위: 천 가구, 천 마리

구분	2010년		2011년				증감율	
	9	12	3	6	9	12	전분기	전년동기
사육가구수	6.4	6.3	6	6.1	6.1	6.1	0.0%	-3.2%
총마리수	429	430	396	403	404	404	0.0%	-6.0%
1세미만	82	83	77	72	74	73	-1.4%	-12.0%
1~2세	101	102	93	95	96	97	1.0%	-4.9%
2세이상	246	245	226	235	234	234	0.0%	-4.5%
가임암소	297	296	273	282	282	283	0.4%	-4.4%
착유우 마리수	208	204	193	196	198			
경산우 마리수	243	241	222	230	229			

자료: 통계청, 「가축동향」

그림 26-12. 젖소 사육 마리수 변화 추이



자료: 통계청, 「가축동향」

2.1.2. 원유 수급 동향

- FMD 발병에 따른 매몰 처분으로 사육 마리수가 감소하였으며, 2011년 1분기의 한파 및 FMD 백신 접종에 따른 스트레스로 원유 생산성이 저하되어 2011년 원유 생산량은 2010년보다 8.9% 감소한 188만 8천 톤으로 추정된다.
- 국내산 원유 생산량 감소와 분유재고 감소, 유제품 소비 증가로 유제품 수입량이 증가하였다. 2011년 유제품 수입량은 162만 톤(원유 환산)으로 2010년보다 42.7%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 26-13. 원유 수급

단위: 천 톤

		2007	2008	2009	2010	2011 ¹⁾
공급	전년이월	53	107	96	55	13
	생산	2,188	2,139	2,110	2,073	1,888
	수입	968	885	959	1,135	1,620
	계	3,209	3,131	3,165	3,262	3,521
수요	소비	3,101	3,035	3,111	3,249	3,485
	차년이월	107	96	55	13	36
	계	3,209	3,131	3,165	3,262	3,521

주: 1) 국내생산은 원유합격량(유업체 수요량) 기준이며, 2011년은 추정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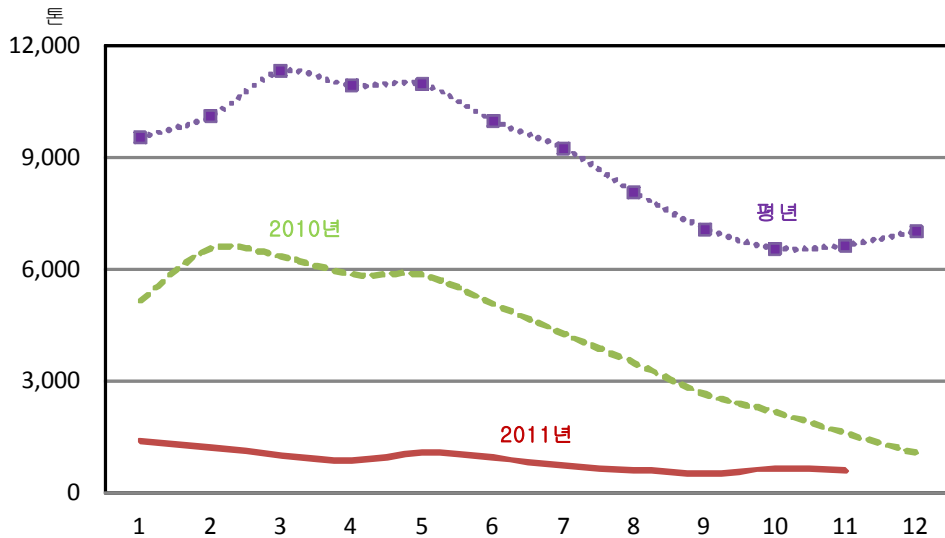
2) 수입 및 수출은 수출입 유제품을 원유로 환산한 양임.

3) 재고는 월말 분유재고를 원유로 환산한 양임.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 원유 생산량 감소와 유제품 소비량 증가로 2011년 11월 분유 재고는 전년 동월보다 62.9% 감소한 589톤이었다.

그림 26-13. 연도별 분유 재고량



자료: 한국유가공협회.

2.1.3. 국내 원유 사용 현황

- 국내에서 생산된 원유 중 70% 이상은 음용유용(백색 시유, 가공생산)으로 사용되고 있다. 음용유용을 제외한 원유는 가공용(시유 외 기타 유제품 생산)으로 사용된다.
- 2011년 국내 원유 사용 실적은 음용유용 원유량이 149만 2천 톤으로 79%, 가공용 원유량은 39만 6천 톤으로 21%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 26-14. 국내 원유 사용 실적

단위: 천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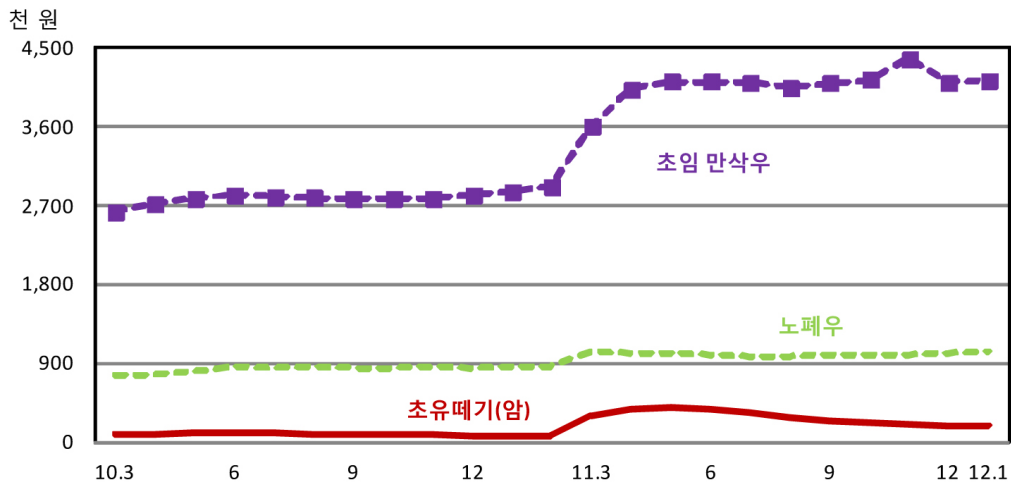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음용유용	1,555	1,582	1,583	1,569	1,541	1,492
가공용	621	606	556	540	532	396
계	2,176	2,188	2,139	2,110	2,073	1,888

주: 2011년은 추정치임.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1.4. 젓소 가격 동향

- 2010년 말 발병한 FMD로 36,397마리의 젓소가 매몰 처분되었다. 또한 쿼터량 확대 및 2011년 8월 원유 수취가격 인상에 따른 농가의 사육의향 고무로 초임 만삭우를 비롯한 초유떼기(암) 및 노페우 가격은 전년보다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었다.
- 2012년 1월(1~20일) 초유떼기 암송아지 가격은 17만 9천원(전년 대비 128.7% 상승), 초임만삭우는 411만 원(44.5% 상승), 노페우 102만 4천 원(20.4% 상승)이었다.

그림 26-14. 젓소 산지가격



자료: 농협중앙회, 「축산물 가격정보」.

2.1.5. 우유 소비패턴 분석

- 2011년 가구당 4주 평균 우유 구매량은 5.71kg으로 2010년보다 5.7% 감소하였다. 4주 평균 구매금액 또한 13,610원으로 2010년보다 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소비자의 1회당 우유 평균 구매량은 2007년 이후 점차 증가하였으나, 2011년에는 1.82kg으로 2010년 보다 3.2% 감소하였다. 흰우유 1회당 구매량은 2010년

1.91kg에서 2011년 1.85kg으로 3.1% 감소하였고, 기능성유와 저지방유 구매량 역시 2010년 비해 각각 1.1%, 1.2% 감소하였다. 가공유는 1.1% 증가하였다.

- 1회당 우유 평균 구매금액은 2010년 4,340원에서 2011년 4,336원으로 0.3% 감소하였다. 2011년 흰우유 1회당 구매금액은 4,354원, 기능성우유 구매금액 4,907원, 저지방우유 구매금액은 3,785원이었다. 가공유 구매금액은 2,693원이었다.

표 26-15. 가구 1회당 우유 소비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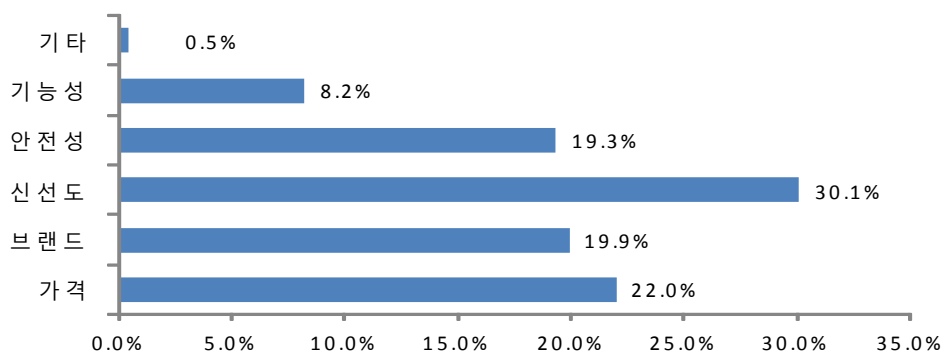
단위: kg, 원

		2008	2009	2010	2011
구매량 (kg)	흰우유	1.69	1.89	1.91	1.85
	기능성유	1.71	1.78	1.74	1.72
	저지방유	1.43	1.54	1.64	1.62
	가공유	0.86	0.82	0.89	0.90
	전체우유	1.67	1.85	1.88	1.82
구매액 (원)	흰우유	3,224	4,354	4,366	4,354
	기능성유	4,375	5,094	4,933	4,907
	저지방유	3,010	3,638	3,691	3,785
	가공유	2,195	2,405	2,630	2,693
	전체우유	3,383	4,318	4,340	4,336

자료: Kantar World Panel

- 소비자들의 우유 선택기준은 신선도(30%)를 가장 우선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격(22%), 브랜드(20%), 안전성(19%), 기능성(8%)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6-15. 소비자의 우유 선택기준



자료: 농업관측센터 소비자조사사치(2012년 1월 6~9일).

2.2. 유제품 교역여건 전망

- FMD 여파에 따른 젖소 사육 마리수 감소로 원유생산량이 감소하자 정부에서는 수입 유제품 원료에 대해 14만 2천 톤(유가공업체 4만 8천 톤, 제과·제빵 업계 9만 4천 톤)의 할당관세를 적용하였다.
- 2011년 젖소 사육 마리수 감소에 따른 생산량 감소와 유제품 할당관세 적용으로 유제품 수입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2011년 유제품 수입량은 전년 대비 35.5% 증가한 28만 5백 톤이었으며, 그 중 치즈, 혼합분유, 유장, 조제버터, 탈지분유가 전체 수입량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 국내 분유재고가 감소하면서 2011년 탈지분유 수입량은 3만 3,523톤(전년 대비 324.2% 증가)이었으며, 치즈 수입량은 7만 6,145 톤(25.0% 증가)이었다. 혼합분유, 유장, 조제버터 수입량은 각각 3만 6,127 톤(14.4% 증가), 3만 432 톤(19.1% 감소), 3만 4,455톤(47.3% 증가)이었다.
- 2011년 유제품 평균 수입단가는 4.0달러/kg으로 전년 대비 21.0% 상승하였다. 치즈는 10.6% 상승한 4.7달러/kg, 혼합분유는 3.4달러/kg, 유장은 1.4달러/kg, 조제버터는 4.6달러/kg, 탈지분유는 3.7달러/kg이었다.
- 우리나라의 주요 유제품 수입국가는 미국, 뉴질랜드, 네덜란드, 호주, 독일 등이다. 이중 미국의 2011년 유제품 수입량은 전체 수입량의 25.9%인 7만 2,767톤을 차지하였으며, 뉴질랜드가 18.9%로써 5만 2,937톤, 네덜란드가 12.3%인 3만 4,544톤을 차지했다.

표 26-16 . 유제품 수입동향

		2007	2008	2009	2010	2011
총수입	수입량(톤)	183,724	164,719	176,197	206,996	280,532
	금액(천\$)	555,780	673,123	500,971	682,469	1,119,042
	단가(\$/kg)	3.0	4.1	2.8	3.3	4.0
치즈	수입량(톤)	49,471	47,385	49,023	60,924	76,145
	금액(천\$)	178,992	238,876	189,917	258,572	357,434
	단가(\$/kg)	3.6	5.0	3.9	4.2	4.7
혼합분유	수입량(톤)	23,628	26,042	25,939	31,572	36,127
	금액(천\$)	76,870	107,229	69,793	90,697	123,264
	단가(\$/kg)	3.3	4.1	2.7	2.9	3.4
유장	수입량(톤)	46,792	32,007	32,219	37,598	30,432
	금액(천\$)	67,083	38,306	28,888	40,661	42,939
	단가(\$/kg)	1.4	1.2	0.9	1.1	1.4
조제버터	수입량(톤)	21,393	20,486	19,963	23,394	34,455
	금액(천\$)	49,706	81,332	49,681	81,985	159,419
	단가(\$/kg)	2.3	4.0	2.5	3.5	4.6
탈지분유	수입량(톤)	4,994	5,022	9,675	7,903	33,523
	금액(천\$)	17,624	20,179	23,209	24,500	123,570
	단가(\$/kg)	3.5	4.0	2.4	3.1	3.7

자료: 관세청

표 26-17. 국가별 유제품 수입량 및 비중

단위: 톤

	미국		뉴질랜드		네덜란드		호주		독일		전체	
	수입량	점유율	수입량	점유율	수입량	점유율	수입량	점유율	수입량	점유율	수입량	점유율
2007	42,078	(22.9%)	28,578	(15.6%)	21,537	(11.7%)	25,880	(14.1%)	5,598	(3.0%)	183,724	(100.0%)
2008	39,688	(24.1%)	31,094	(18.9%)	23,064	(14.0%)	21,559	(13.1%)	5,672	(3.4%)	164,719	(100.0%)
2009	36,268	(20.6%)	34,478	(19.6%)	20,100	(11.4%)	31,275	(17.8%)	6,874	(3.9%)	176,197	(100.0%)
2010	54,667	(26.4%)	39,421	(19.0%)	28,570	(13.8%)	28,559	(13.8%)	5,826	(2.8%)	206,996	(100.0%)
2011	72,767	(25.9%)	52,937	(18.9%)	34,544	(12.3%)	32,384	(11.5%)	20,458	(7.3%)	280,532	(100.0%)

주: 괄호안은 해당국가의 점유율임.

자료: 관세청

- 2011년 7월 1일부터 한·EU FTA가 발효되었으며, 한·미 FTA는 2011년 말에 비준되었다.
- 한·EU FTA 발효로 탈지 및 전지분유 관세율(176%)는 현행대로 유지되나, 무관세 쿼터 1,000톤이 제공된다. 치즈(무관세 쿼터 4,560톤) 및 밀크와 크림은 10~15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되며, 버터(무관세 쿼터 350톤) 및 유장(무관세 쿼터 3,350톤)은 10년에 걸쳐 무관세로 전환된다.

표 26-18. 한·EU FTA 유제품 관세 변화 내용

품목	현행 관세율	한·EU FTA	
		관세율 변화	쿼터량 제공
탈지· 전지분유	176%	현행 유지	무관세 쿼터 1,000톤 제공 (매년 3% 증량)
치즈	36%	체다치즈: 10년 철폐 이외 치즈: 15년 철폐	무관세 쿼터 4,560톤 제공 (매년 3% 증량)
밀크와 크림	36%	지방함량 6% 이하: 15년 철폐 기타 지방함량 6% 초과: 13년 철폐 냉동크림: 10년 철폐	-
버터	89%	10년 철폐	무관세 쿼터 350톤 제공 (매년 3% 증량)
유장	49.5%	식용: 10년 철폐 사료용: 즉시 철폐	무관세 쿼터 3,350톤 제공 (매년 3% 증량)

자료: 외교통상부

- 한·미 FTA 발효로 탈지 및 전지분유 관세율은 현행 176%의 관세율이 유지되나, 무관세 쿼터 5,000톤(매년 3% 증량)이 제공된다. 치즈(무관세 쿼터 7,000톤)와 밀크와 크림 관세율 36%는 10~15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되며, 버터(무관세 쿼터 200톤)와 유장(무관세 쿼터 3,000톤)의 관세율 89%와 49.5%는 10년에 걸쳐 무관세로 전환된다.

표 26-19. 한·미 FTA 유제품 관세 변화 내용

품목	현행 관세율	한·미 FTA	
		관세율 변화	쿼터량 제공
탈지· 전지분유	176% TRQ: 20~40%	현행 유지	무관세 쿼터 5,000톤 제공 (매년 복리 3% 증량)
치즈	36%	체다치즈: 10년 철폐 이외 치즈: 15년 철폐	무관세 쿼터 14년제공, 7,000톤 (매년 복리 3% 증량)
밀크와 크림	36%	지방함량 6% 이하: 15년 철폐 기타 지방함량 6% 초과: 12년 철폐 냉동크림 지방함량 6% 초과: 10년 철폐	-
버터	89%	10년 철폐	무관세 쿼터 9년제공 200톤 (매년 복리 3% 증량)
유장	49.5%	식용: 20%부터 시작해 10년 철폐 사료용: 즉시 철폐	무관세 쿼터 9년제공 3,000톤 (매년 복리 3% 증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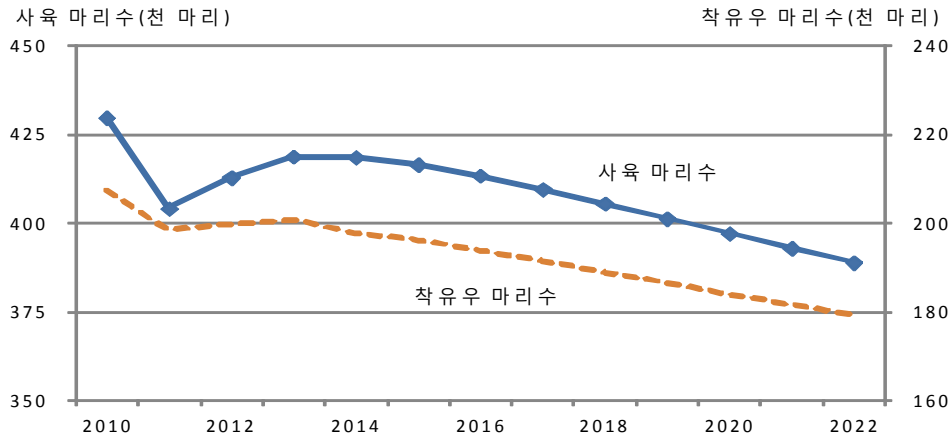
자료: 외교통상부

2.3. 젖소 사육과 원유 수급 전망

- 한·미 FTA 타결내용이 2012년부터 이행되는 것을 가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관세율 변화 및 유제품별 무관세 쿼터를 분석에 반영하였다.
- 2011년 8월 원유가 인상에 대한 낙농가의 경영수지 개선, 체세포 2등급에 대한 인센티브 증액으로 젖소 농가의 사육의향이 고무되고 있어 젖소 사육 마리수는 2012년 41만 3천 마리, 2013년 41만 9천 마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 이후부터 젖소 사육 마리수는 감소세로 전환되어 2017년 40만 9천 마리, 2022년 38만 9천 마리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FMD 백신 접종과 방역 활동에 따른 젖소 스트레스로 원유 생산량 증가폭은 사육 마리수 증가분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 원유 생산량은 2011년보다 1.5% 증가한 191만 5천 톤으로 전망된다. 이후 젖소 사육 마리수 감소세로 원유 생산량은 2017년 190만 3천 톤, 2022년 184만 6천 톤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한·미 FTA 및 한·EU FTA 발효로 2012년 유제품 수입량(원유환산 기준)은 2012년 164만 톤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 176만 톤, 2022년 185만 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1인당 우유 소비량도 2012년 69.2kg에서 2017년 72.2kg, 2022년 73.2kg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6-16. 젖소 사육 마리수 전망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KASMO 2011)

표 26-20. 원유 수급 전망

단위: 천 톤

		2011	전 망			
			2012	2013	2017	2022
사육 마리수 (천 마리)		404	413	419	409	389
공급	전년이월	13	36	109	171	198
	생산	1,888	1,915	1,939	1,903	1,846
	수입	1,620	1,640	1,679	1,757	1,852
	계	3,521	3,590	3,726	3,832	3,895
수요	소비	3,485	3,481	3,582	3,652	3,694
	차년이월	36	109	144	180	201
	계	3,521	3,590	3,726	3,832	3,895
1인당소비(kg)		69.4	69.2	71.1	72.2	73.2

주: 1) 소비에는 수출량이 포함되어 있음.

2) 수입 및 이월은 유제품을 원유로 환산한 양임.

3) 2011년은 추정치이며, 2012년 이후는 전망치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KASMO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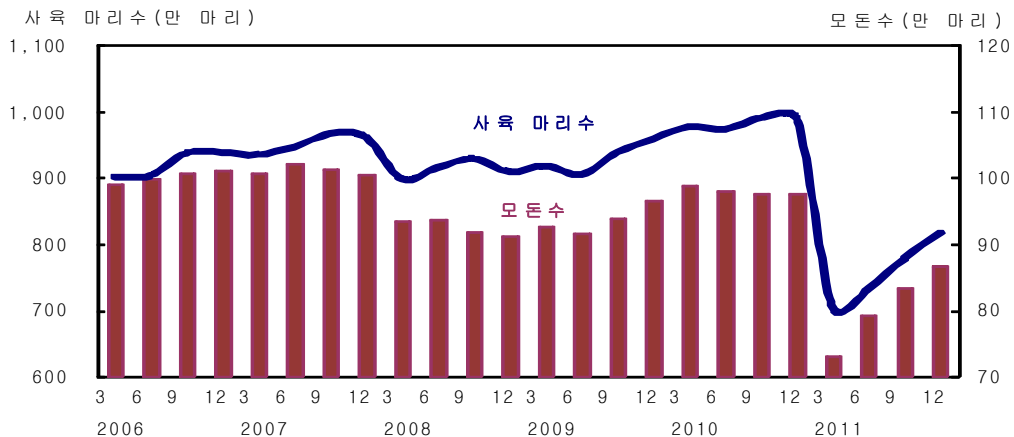
3 돼 지

3.1. 돼지 사육과 돼지고기 수급 동향

3.1.1. 사육 동향

- 2010년 11월~2011년 3월까지 지속된 FMD로 332만 마리의 돼지가 매몰 처분됨에 따라 2011년 3월 돼지 사육 마리수가 704만 마리까지 감소하였다. FMD 종식 이후 지속된 모돈 입식으로 2011년 12월 사육 마리수는 817만 마리까지 회복되었다.
- 2011년 연평균 돼지 사육 마리수는 2010년보다 22.8% 감소한 758만 마리며, 모돈수는 전년보다 17.7% 감소한 81만 마리였다.
 - 2011년 12월 돼지 사육 마리수는 2010년 동월보다 17.3% 감소한 817만 마리였으나, 백신 접종 우선 대상이었던 모돈수는 90만 3천 마리로 전년 동월대비 92.5% 수준까지 회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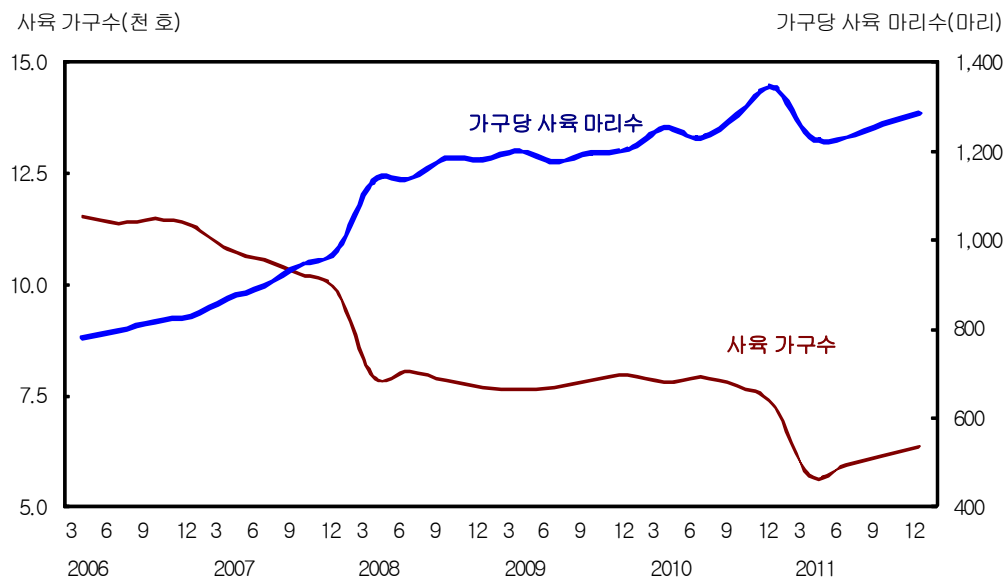
그림 26-17. 돼지 총 사육 마리수와 모돈수



자료: 통계청, 「가축동향」.

- 2011년 12월 기준 1,000마리 미만 사육 농가의 사육 마리수는 102만 마리로 2010년 동월의 88.3%까지 회복되었으나, 1천 마리 이상 전업농가의 사육 마리수는 715만 마리로 전년 동월의 82.0% 회복에 머물렀다.
- FMD 이후 1,000마리 이상 전업농가의 재입식 지연으로 2011년 돼지 사육 농가수가 전년보다 감소하였다. 2011년 12월 돼지 사육 농가수는 6,347호로 2010년 12월(7,347호)보다 1,000호(13.7%) 감소하였다.
- 지속된 모든 재입식에도 불구하고 사육 규모가 FMD 이전 수준까지 회복되지 않아 2011년 12월 가구당 돼지 사육 마리수는 1,287마리로 2010년 12월보다 67마리(4.9%) 감소하였다.

그림 26-18. 돼지 사육 가구수와 가구당 사육 마리수



자료: 통계청, 「가축동향」.

3.1.2. 돼지고기 수급 동향

- 2011년 돼지 도축 마리수는 2010년보다 26.0% 감소한 1,082만 마리였다. 도축 마리수가 줄어 2011년 돼지고기 생산량은 전년보다 24.7% 감소한 57만 6천 톤으로 추정된다.
- 2011년 돼지고기 수입량은 FMD로 국내 생산량이 부족함에 따라 긴급할당관세 26만 톤이 수입되는 등 2010년보다 106.3% 증가한 37만 톤이었다. 2011년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전년과 비슷한 19.2kg으로 추정된다.

표 26-21. 돼지고기 수급 동향

단위: 천 톤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공급	전년이월	46.7	47.7	57.6	44.0	48.0	47.5
	생산	677.4	709.6	709.3	722.2	761.1	575.8
	수입	210.6	248.3	214.3	209.8	179.5	370.4
	계	934.6	1,005.7	981.2	976.0	988.6	993.7
수요	소비	874.7	931.4	926.8	915.5	940.6	940.0
	수출	12.2	12.6	10.4	12.5	0.5	0.3
	차년이월	47.7	57.5	44.0	48.0	47.5	53.4
	계	934.6	1,005.7	981.2	976.0	988.6	993.7
1인당 소비(kg)		18.1	19.2	19.1	19.1	19.2	19.2

주: 2011년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추정치.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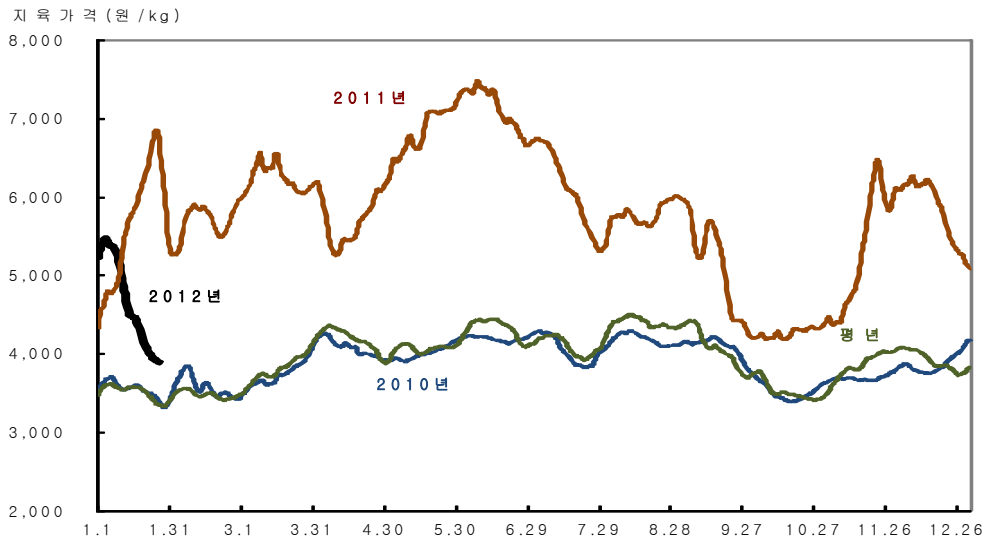
3.1.3. 돼지고기 가격 동향

- 2011년 3월까지 돼지 지육가격은 FMD 매몰 처분과 이동제한조치로 도축 마리수가 감소하여 탕박 기준 1kg에 5,948원(박피 기준 1kg 6,426원)으로 2010년 동기보다 63.8% 상승하였다. 그러나 FMD 종식과 함께 이동제한조치가 해제되면서 출하가 지연되었던 낮은 등급의 돼지가 집중 출하되어 4월 지육가격은 1kg에 5,740원(박피 기준 1kg 5,786원)으로 3월보다 하락하였다.
- 2011년 5~6월 지육가격은 출하 마리수 부족에 따른 중도매인의 경쟁 심화로 전년 동기보다 72.2% 상승한 1kg에 7,032원(박피 기준 1kg 7,402원)이었다.

그러나 긴급할당관세로 돼지고기 수입량이 증가하여 7~8월 돼지 지육가격은 1kg에 5,969원(박피 기준 1kg 6,447원)으로 5~6월보다 15.1% 하락하였다.

- 2011년 9~10월 지육가격은 이른 추석 명절의 영향과 도축 마리수 증가로 7~8월보다 21.6% 하락한 1kg에 4,682원(박피 기준 1kg 4,940원)이었다. 그러나 김장철 수요 증가와 이동제한시기 정액공급 부족에 의한 도축 마리수 감소, 육가공업체의 재고 확보 작업의 영향으로 11~12월 지육가격은 1kg에 5,622원(박피 기준 1kg 5,978원)으로 9~10월보다 20.1%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2011년 연평균 돼지 지육가격은 탕박 기준 1kg에 5,808원(박피 기준 1kg 6,149원)으로 2010년보다 49.3% 상승하였다.
- 2012년 1월부터 돼지 경락가격 대표 기준가격이 박피에서 탕박으로 변경되었으며, 도축 마리수 및 도매시장 출하 마리수 증가로 1월(27일까지) 지육가격은 탕박 기준 1kg에 4,731원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26-19. 돼지 지육가격(탕박 기준) 장기동향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3.1.4. 돼지고기 소비패턴

- 2011년 가구당 1회 평균 돼지고기 구매량은 1.15kg으로 2010년보다 4.8% 감소하였으며, 1회 평균 구매금액은 1만 5,859원으로 2010년보다 1,830원(1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소비자가구의 4주 평균 돼지고기 구매량은 2007년 2.02kg에서 2010년 2.16kg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1년 구매량은 FMD와 가격상승으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2010년보다 8.3% 감소한 1.98kg이었다.
- 삼겹살 구매량은 2007년 1.39kg에서 2010년 1.47kg으로 5.8% 증가하였다. FMD로 소비가 위축된 2011년에도 삼겹살 구매량은 1.47kg으로 2010년과 비슷하였다.
- 갈비 구매량은 2007년 1.99kg에서 2010년 2.05kg으로 증가하였으나 2011년에는 2.03kg으로 전년보다 0.8% 감소하였다. 목심 구매량은 2007년 1.20kg에서 2011년 1.10kg으로 8.3% 감소하였다.

표 26-22. 소비자가구 4주 평균 돼지고기 소비동향

단위: kg, 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구매량 (kg)	삼겹살	1.39	1.41	1.41	1.47	1.47
	갈비	1.99	2.03	2.02	2.05	2.03
	목심	1.20	1.25	1.18	1.21	1.10
	전·후지	1.15	2.37	2.46	2.44	2.17
	등·안심	0.75	1.43	1.51	1.44	1.23
	돼지고기 평균	2.02	2.09	2.08	2.16	1.97
구매액 (원)	삼겹살	16,909	19,346	20,932	21,548	23,557
	갈비	18,311	19,951	21,348	20,622	23,732
	목심	12,962	15,240	15,835	16,514	18,965
	전·후지	7,392	8,574	9,590	9,597	11,399
	등·안심	6,010	6,257	7,096	6,937	7,900
	돼지고기 평균	19,424	22,271	23,774	25,060	27,166

자료: Kantar Worldpanel Korea

-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와 다양한 요리법 보급으로 소비 증가세를 지속하던 전·후지와 등·안심 구매량은 2010년보다 각각 11.9%, 13.9% 감소하여 선호 부위인 삼겹살과 갈비보다 상대적으로 소비 감소폭이 컸다.
- 국산 돼지고기 공급량 감소로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2011년 4주 평균 돼지고기 구매금액은 2010년보다 2,106원 상승한 2만 7,166원이었다. 삼겹살 4주 평균 구매금액은 2만 3,557원, 구매량이 감소한 목심의 구매금액은 1만 8,965원이었다.
- 2012년 국산 돼지고기 상반기 수요는 전년 동기와 비슷하고 하반기 수요는 전년 동기보다 0.4%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수입 돼지고기 수요는 상반기 8.6% 감소, 하반기 9.0%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어 2012년 돼지고기 총수요는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6-23. 2012년 돼지고기 수요전망

단위: %

			응답비율 (a)	평균증감률 (b)	가중평균 (c)=(a×b)	수요증감 (%p)
국산	상반기	증가	24.5	17.8	4.4	0.0
		감소	19.5	-22.3	-4.4	
	하반기	증가	27.3	18.1	4.9	0.4
		감소	20.1	-22.7	-4.5	
수입	상반기	증가	7.8	21.0	1.6	-8.6
		감소	33.1	-31.0	-10.2	
	하반기	증가	7.8	20.7	1.6	-9.0
		감소	34.0	-31.1	-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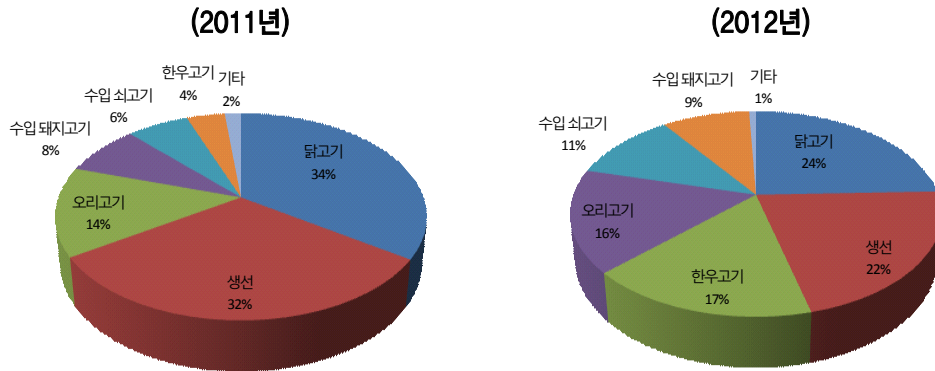
주: 1) 평균 증감률은 수요 증가 응답자의 평균 증가율과 수요 감소 응답자의 평균 감소율.

2) 수요증감은 가중 평균된 수요 증가율과 수요 감소율의 합.

자료: 농업관측센터 소비자조사치(2012년 1월 6~9일)

- FMD 이후 소비가 감소한 국산 돼지고기의 대체관계 파악을 위해 실시한 소비자 조사 결과, 국산 돼지고기의 대체재로는 닭고기 24.5%, 생선 21.5%, 한우고기 16.5%, 오리고기 16.2%, 수입 쇠고기 11.1%, 수입 돼지고기 9.1% 순으로 조사되었다.
- 2011년 2월 조사와 비교하면 닭고기와 생선의 대체비중은 10%p 감소한 반면 한우고기의 대체비중은 13%p 증가하였다.

그림 26-20. 국산 돼지고기 대체재



자료: 농업관측센터 소비자조사치(2011년 2월 1~7일, 2012년 1월 6~9일)

3.2. 돼지고기 교역여건 전망

- 2011년 국가별 돼지고기 수입 비중은 미국이 전체 돼지고기 수입량의 3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캐나다 12.8%, 독일 7.3%, 칠레 6.7% 순이다. 특히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내세운 독일산 냉동 삼겹살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다.
 - 권역별 수입 비중은 북미가 53.6%로 가장 큰 비중을 보였고, EU가 39.6%를 점유하고 있다.
- 돼지고기 수입량의 41.7%를 차지하는 삼겹살은 독일이 16.5%로 가장 큰 비중을 보였고, 오스트리아 10.9%, 네덜란드 10.9%, 칠레 9.2%, 프랑스 9.0%, 벨기에 8.4%, 미국 7.7% 순으로 수입되어 대부분 EU지역에서 수입되었다.
 - 삼겹살 수입량의 11.5%를 차지하는 냉장 삼겹살은 캐나다가 43.8%, 미국 32.9%, 칠레 10.2%, 멕시코 7.8% 등 주로 미주지역에서 수입되었다.
- 돼지고기 수입량의 32.0%를 점유하고 있는 가공용 전지는 미국이 66.3%, 캐나다 16.4% 등 대부분 북미에서 수입되었다.

표 26-24. 우리나라의 국가별 돼지고기 수입량

단위: 톤

연도	총수입량	미국	캐나다	독일	칠레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프랑스
2006	210,462	60,862	26,060	-	22,348	10,746	10,971	18,245
2007	248,343	70,384	29,505	-	31,898	13,502	14,002	21,540
2008	214,378	72,320	28,476	-	19,472	11,386	16,387	17,274
2009	190,780	74,821	26,266	-	36,302	11,272	12,839	14,207
2010	179,532	51,008	17,743	4,766	29,862	13,154	13,354	13,852
2011	370,382	143,047	47,567	27,153	24,991	18,893	17,934	16,465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 미국의 2012년 돼지고기 생산량은 모든 복당 산자수 증가로 2011년보다 1.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돼지고기 수출량은 중국과 멕시코에의 수출량 확대로 2011년보다 2.8% 증가할 전망이다. 미국 돼지고기 생산량 중에서 수출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2005년 이후 세계 제일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 중국의 2012년 돼지고기 생산량은 질병관리 개선에 의한 생산성 향상, 가격 상승, 정부의 보조금 지원 등으로 2011년보다 3.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돼지고기 수입량은 국내 돼지고기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요 증가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2011년보다 1.8% 증가할 전망이다.
- 유럽연합(EU-27)의 돼지고기 생산량은 사료비 부담과 수익성 저하에 따른 양돈 산업 구조조정으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2012년 돼지고기 생산량은 2011년보다 0.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돼지고기 수출량은 러시아의 쿼터 감축과 우리나라의 FMD 피해 회복 등으로 2011년보다 5.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6-25. 주요국의 돼지고기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천 톤

		중국			EU(27개국)			미국		
		2010	2011	2012	2010	2011	2012	2010	2011	2012
공급	생산	51,070	49,500	51,280	22,552	22,530	22,480	10,186	10,278	10,466
	수입	415	550	560	-	-	-	390	379	374
	계	51,485	50,050	51,840	22,552	22,530	22,480	10,570	10,657	10,840
수요	소비	51,157	49,810	51,560	20,823	20,545	20,595	8,653	8,384	8,526
	수출	278	260	280	1,754	2,000	1,900	1,916	2,246	2,309
	계	51,435	50,070	51,840	22,567	22,545	22,495	10,569	10,630	10,835

자료: 미농무부(USDA), "Livestock and Poultry: World Markets and Trade".

- 한·EU FTA가 2011년 7월 발효되었으며 한·미 FTA는 2012년 상반기에 발효되는 것을 전제로 국가별 돼지고기 수입 단가 변화를 분석하였다.
 -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산 냉동 삼겹살은 2014년에 관세가 철폐되며, 냉동 기타 부위는 2016년에 관세가 철폐된다.
 - 한·EU FTA로 유럽연합산 냉동 삼겹살 관세는 2011년부터 10년, 냉동 기타 부위는 5년에 걸쳐 철폐하게 된다.
- 2011년 기준 돼지고기 kg당 평균 수입단가는 미국산 2.17\$, EU산 2.87\$, 기타 1.96\$였다. 국가별 주요 수입 부위가 달라 수입단가에 차이가 있지만 이를 기준으로 돼지고기 국제가격 변화와 연동하여 수입단가 전망치를 분석한 결과, 수입 단가는 미국과 EU 모두 연평균 1.7% 상승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 수입단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한·미FTA의 영향으로 관세가 하락하고 환율도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어 2012년 미국산 돼지고기(냉동) 도매원가는 2011년보다 4.8% 하락한 1kg에 3,254원으로 예상된다. EU산 돼지고기(냉동)의 도매원가는 2011년과 비슷한 1kg에 4,448원으로 전망된다.

표 26-26. 돼지고기 수입 단가 전망

		2011	전 망			
			2012	2013	2017	2022
환율(원/US\$)		1,102	1,092	1,025	986	991
관세율 (%)	미국	25.0	16.0	12.0	0.0	0.0
	EU	22.5	20.0	17.5	7.5	0.0
	기타	25.0	25.0	25.0	25.0	25.0
수입단가 (\$/kg)	미국	2.17	2.24	2.27	2.47	2.57
	EU	2.87	2.96	3.00	3.27	3.40
	기타	1.96	1.97	1.82	1.91	2.06
도매원가 (원/kg)	미국	3,419	3,254	2,995	2,814	2,939
	EU	4,436	4,448	4,149	3,989	3,888
	기타	3,098	3,079	2,666	2,699	2,920

주: 1) 환율은 Global Insight 전망치를 이용함.

2) 2012년 이후 수입 단가는 미국 FAPRI 2011 전망치를 이용하여 CIF 기준가격으로 환산함.

3) 도매원가는 국제가격에 환율, 관세, 부대비용과 이윤(10%) 등을 포함한 가격임.

3.3. 돼지 사육과 돼지고기 수급 전망

3.3.1. 중기 선행관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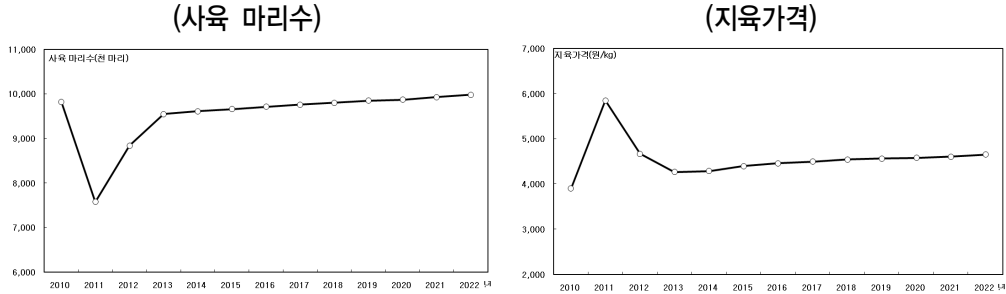
- 2011년 12월 돼지 사육 마리수는 817만 마리로 전년 동월보다 17.3% 감소하였지만 2011년 9월보다는 5.0% 증가하였다. 활발한 모돈 재임식으로 2011년 12월 모돈수는 전년 동월 대비 92.5% 회복된 90만 3천 마리였다.
- 신규 모돈 입식과 사양관리 개선에 따른 생산성 향상으로 2012년 3월 돼지 사육 마리수는 전년 12월보다 2.8~4.0% 증가한 840~850만 마리, 6월에는 3월보다 3.6% 내외 증가한 870~880만 마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사육 마리수가 회복됨에 따라 도축 마리수도 증가하여 2012년 1~6월 돼지고기 생산량은 2011년 동기보다 16.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긴급할당관세로 7만 톤의 돼지고기 수입이 예정되어 있지만 국산 돼지고기 생산량 증가로 상반기 돼지고기 수입량은 2011년 동기보다 30.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국산 돼지고기 공급량 증가로 2012년 상반기 돼지고기 지육가격은 2011년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2월 지육가격은 설 명절 이후 수요 감소로 탕박 기준 1kg에 4,200~4,400원으로 전망되며, 3~4월 지육가격은 1kg에 4,500~4,800원으로 전망된다.
- 5월 지육가격도 전년 동기보다 낮은 5,000~5,400원으로 예상되며, 2010년 여름철 수태율 저하에 따라 출하 마리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6월 가격은 5,600~6,000원으로 전망된다.
- 다만, 정부의 각종 물가관리대책이 실행될 경우 지육가격은 전망가격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
- FMD 이후 모든 재입식 시기가 집중됨에 따라 2012년 10월 이후 출하 마리수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석 이후 비수기 지육가격은 생산비 이하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3.3.2. 장기 수급전망

- FMD 이후 지속된 모든 재입식으로 2012년 돼지 사육 마리수는 전년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2012년 9월 이후에는 900만 마리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돼지 사육 마리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2년 연평균 사육 마리수는 999만 마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가축분뇨 처리문제, 축산업 허가제 도입 등 사육 환경 변화에 따라 사육 마리수 증가폭은 전망치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제한될 수 있다.
- 사육 마리수가 증가함에 따라 돼지 도축 마리수도 2011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산 돼지고기 생산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으로 돼지고기 생산량 증가세가 지속되어 2022년 생산량은 80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6-21. 돼지 사육 마리수와 지육가격 전망



주: 사육 마리수는 연평균 마리수임.

자료: 농림부, 「가축동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망치(KASMO 2011).

- 2012년 3월까지 7만 톤의 돼지고기가 긴급할당관세로 수입될 예정이지만 국내 돼지고기 생산량이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2012년 돼지고기 수입량은 2011년보다 30.9% 감소한 26만 톤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그러나 소득증가에 따른 육류 수요 증가로 2013년 이후 돼지고기 수입량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2년 돼지고기 수입량은 32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 된다.
- 국내 돼지고기 공급량이 증가하여 2012년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2011년보다 소폭 증가한 19.3kg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적으로 돼지고기 수요가 증가하여 2022년 1인당 소비량은 22.7kg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출하 마리수가 증가하여 2012년 연평균 돼지 지육가격은 2011년보다 하락한 당박 기준 1kg에 4,600원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정부의 물가관리대책 여부에 따라 지육가격은 전망가격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형성될 수도 있다.
- 돼지 연평균 지육가격은 2013년에 4,200원대까지 하락한 뒤 2014년 이후 회복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육류 소비 증가로 돼지 지육가격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표 26-27. 돼지고기 수급 및 가격 전망

단위: 천 톤

		2011	전 망			
			2012	2013	2017	2022
공급	전년이월	47.5	53.4	50.1	50.3	50.3
	생산	575.8	687.1	730.8	771.3	800.1
	수입	370.4	256.3	258.0	289.1	321.0
	계	993.7	996.8	1,038.9	1,110.7	1,171.4
수요	소비	940.3	946.8	989.1	1,060.3	1,121.2
	차년이월	53.4	50.1	49.8	50.3	50.2
	계	993.7	996.8	1,038.9	1,111.8	1,171.4
1인당 소비(kg)		19.2	19.3	20.1	21.4	22.7
지육가격(원/kg)		5,808	4,669	4,264	4,495	4,652

주: 소비에는 수출량이 포함되어 있고, 지육가격은 명목가격임. 2011년은 추정치.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망치(KASMO 2011).

4

산란계

4.1. 산란계 사육과 계란 수급 동향

4.1.1. 산란계 사육 동향

- 2010년 12월 HPAI가 2년 만에 재발하여 산란계 189만 마리와 산란종계 17만 마리가 매몰처분 되었다.
- HPAI 발생으로 산란종계가 매몰처분 되면서 2011년 산란종계 입식 마리수는 크게 증가하여 전년(53만 9천 마리)보다 23.5% 증가한 66만 5천 마리로 나타났다. 이는 평년(49만 8천 마리)에 비해 33.6% 증가한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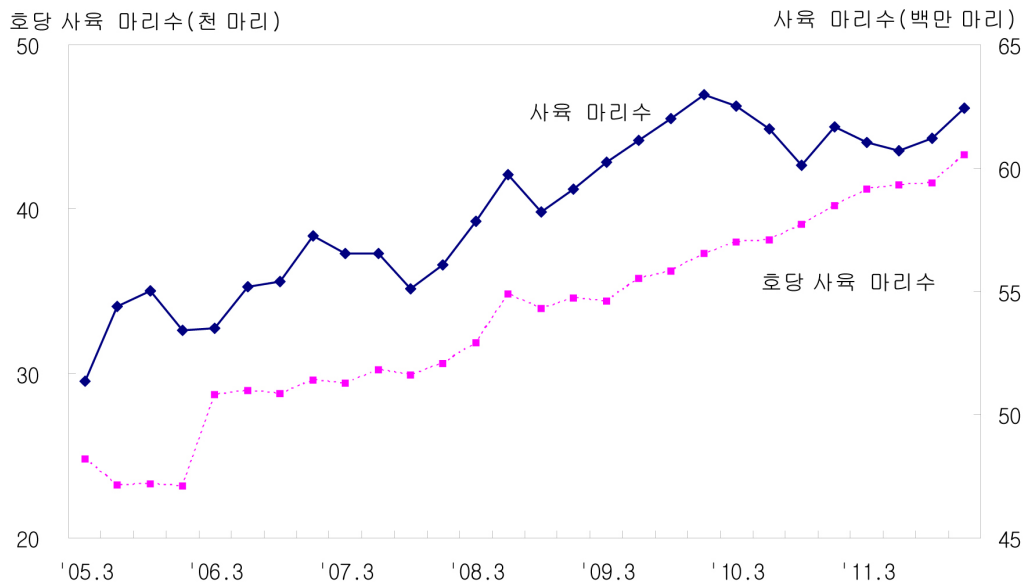
그림 26-22. 산란 종계 입식 마리수



자료: 대한양계협회.

- 산란계 매몰처분과 병아리 생산 감소로 인한 입식 감소로 상반기 산란계 사육 마리수는 전년보다 감소하였다. 하지만 1~11월 산란 노계 도태 마리수는 전년 대비 17% 감소하여 하반기 산란계 사육 마리수는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1년 12월 산란계 사육 마리수는 6,243만 마리로 전년 대비 1.2% 증가하였으며, 사육 가구수 감소에 따라 호당 사육 마리수는 43,320마리로 전년 대비 7.8%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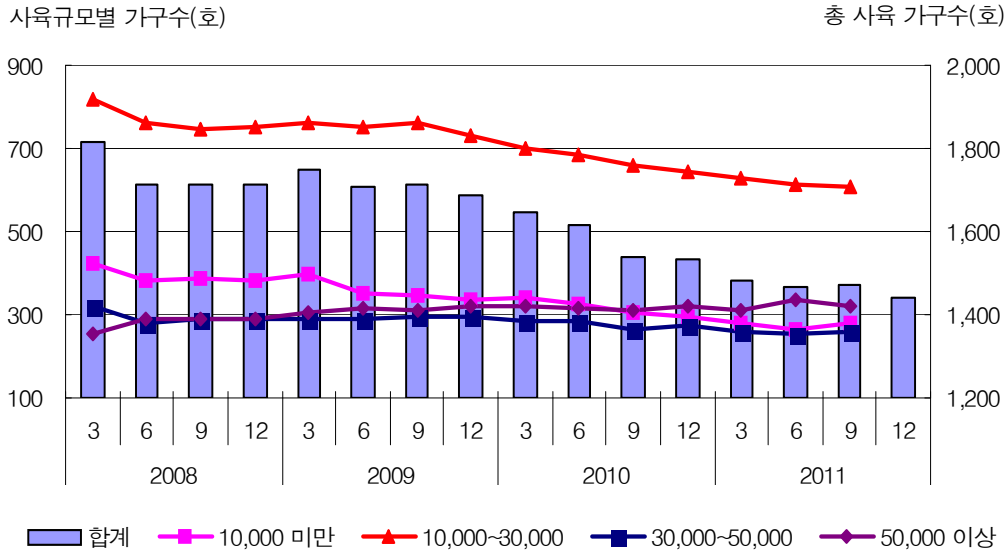
그림 26-23. 산란계 사육 마리수 및 호당 사육 마리수



자료: 통계청, 「가축동향」.

- 산란계 사육의 규모화가 진행됨에 따라 5만 마리 미만 사육 가구수는 감소하고, 5만 마리 이상 사육 가구수는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체 가구 중 79%가 5만 마리 미만 농가들로 여전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26-24. 산란계 규모별 사육 가구수



자료: 통계청, 「가축동향」.

4.1.2. 수급 동향

- 2011년 산란용 배합사료 생산량은 2010년보다 1.5% 증가하였다. 그러나 배합사료 생산량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산란초기 배합사료 생산량은 1.5% 감소하였으며, 산란 중·말기 배합사료 생산량은 22% 증가하였다.
- 산란계 배합사료 생산량을 기준으로 볼 경우, 계란 생산량은 2010년보다 0.7% 감소한 57만 3천 톤으로 추정된다. 이는 HPAI 발생으로 산란중계 마리수가 감소하여 계란 생산에 새로이 가담하는 신계군이 감소하고, 지속적인 산란노계 도태 지연으로 노계 비율이 증가하여 생산성이 크게 저하되었기 때문이다.
- 2011년 조란(구운란) 및 기타 계란 가공품 수입량은 국내 계란 생산량 감소의 영향으로 2010년(2,207톤)보다 12.7% 증가한 2,488톤이었다. 계란 가공품 수입량은 국내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2010년 기준 0.4%)이 매우 낮으며, 신선란은 검역 절차상 수입되지 않고 있다.

- 2011년 조란(구운란) 수입량은 2010년(543톤)보다 29% 감소한 385톤이었다. 계란 가공품 중 난백은 2010년보다 9.7% 증가한 623톤이었으며, 난황은 43% 증가한 1,560톤이었다.
- 2011년에는 미국산 계란 가공품(기타 난황)의 수입이 2010년보다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국내 계란 생산량 감소와 더불어 환율하락 및 미국내 계란 생산량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표 26-28. 계란 가공품 수입현황

		2007	2008	2009	2010	2011
총수입	금액(천\$)	9,903	8,632	7,151	10,582	11,688
	수입량(톤)	2,744	1,795	1,645	2,207	2,488
구운란	금액(천\$)	952	999	1,135	2,259	1,419
	수입량(톤)	517	498	478	543	385
난백	금액(천\$)	4,559	3,463	3,148	4,687	5,340
	수입량(톤)	578	356	338	568	623
난황(건조)	금액(천\$)	980	1,305	1,454	1,621	1,612
	수입량(톤)	245	243	350	338	322
난황(기타)	금액(천\$)	3,412	2,865	1,414	2,015	3,317
	수입량(톤)	1,404	698	474	759	1,238

자료: 대한양계협회.

- 2011년 HPAI 발생은 계란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며, FMD와 일본 방사능 유출사고 등으로 인한 대체수요 발생으로 상반기에 계란수요가 일시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계란 생산량 감소와 가격 상승 영향이 크게 나타나 1인당 소비량은 전년보다 0.9% 감소한 11.7kg에 머문 것으로 추정된다.

표 26-29. 계란 수급

단위: 천 톤, kg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p)
국내 생산	514.9	537.4	543.8	541.9	579.0	577.5	573.0
수입	3.5	3.2	3.1	1.9	1.7	2.1	2.5
1인당 소비	10.8	11.2	11.3	11.0	11.9	11.8	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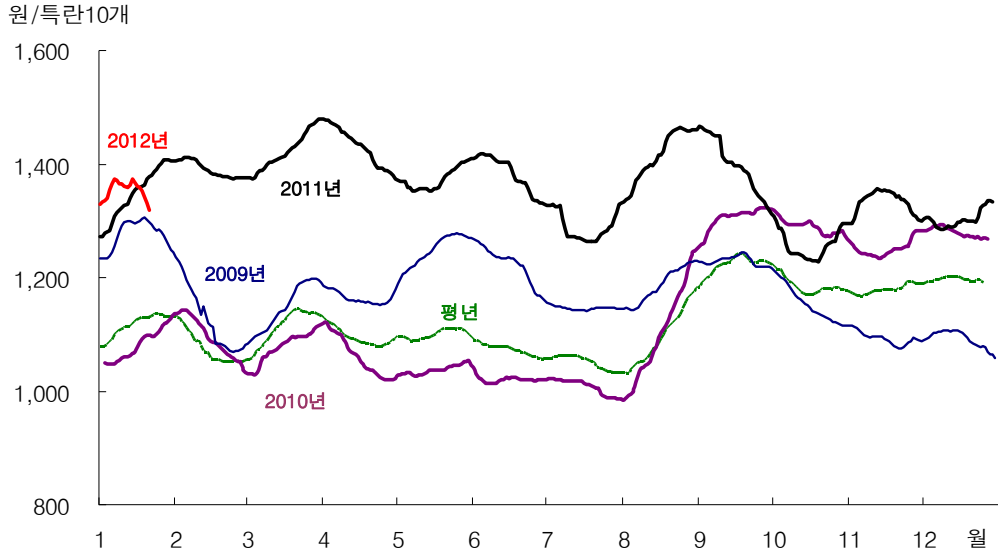
주: 2011년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추정치.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 소비자 조사에서 2012년에 계란 소비를 증가시킨다는 응답은 69.9%로 감소시킨다고 응답한 30.1%보다 많았다. 계란 소비를 증가시키는 이유를 보면, 구입과 요리가 용이(증가 응답 중 60.7%)가 가장 높았으며, 영양이 풍부해서(28.0%) 순으로 나타났다. 가격이 저렴해서라는 응답이 2011년 계란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3.8%에 그쳤다.
- 2012년에 계란 소비를 감소시킨다는 이유로는 계란가격이 많이 올라서(감소 응답 중 34.9%)가 가장 많았다. 이어서 콜레스테롤 등 건강상 이유로(27.5%), 계란을 잘 먹지 않아서(13.4%), 위생상태와 신선도 의심(8.7%)순으로 나타났다.

4.1.3. 계란 가격 동향

- 2011년 평균 계란 가격은 2010년보다 20.0% 상승한 1,361원(특란 10개)이었다.
- 2011년 HPAI 발생으로 산란용 닭 마리수가 감소하고, 새로이 산란에 가담하는 신계군의 감소로 계란 생산량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 또한 지속적으로 산란노계 도태가 지연되면서 6월 이후에는 산란용 사육 마리수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지만, 노계 비중 증가로 산란계의 생산성이 크게 저하되어 계란 생산량이 전년보다 감소하였다.
- 추석 이후 계란 소비가 둔화됨에 따라 계란가격은 전년보다 하락하였다. 그러나 2011년 9~10월 산란노계 도태가 일시적으로 증가하여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10월 이후 계란가격은 전년보다 상승하였다. 2012년 1월 계란가격은 이른 설 수요로 높게 형성되었고 설 이후 약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26-14. 계란 산지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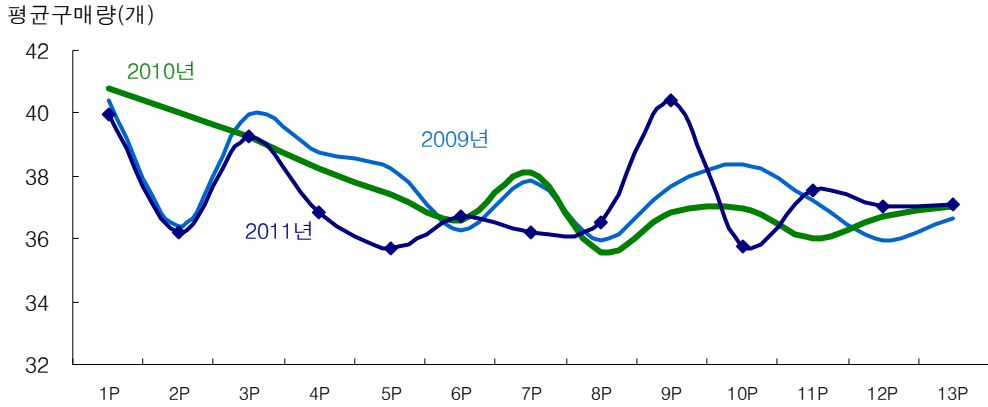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07~11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농협중앙회, 「축산물 가격정보」.

4.1.4. 계란 소비패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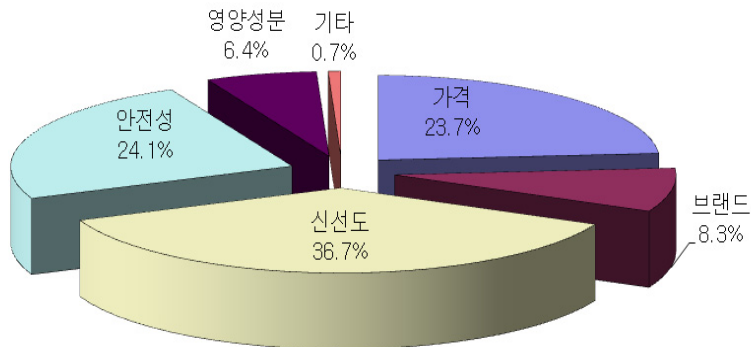
- 2011년 가구당 4주간 평균 계란 구매액은 개당 194원으로 2010년보다 16.2% 상승하였다. 그러나 4주간 평균 계란 구매량은 37.3개로 2010년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계란가격 상승으로 구매액은 상승한 반면, 구매량은 감소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 소비자들의 계란 선택기준을 보면 신선도(36.7%)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안전성(24.1%), 가격(23.7%), 브랜드(8.3%)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소비자가 가격보다는 품질을 우선 고려함을 의미한다.

그림 26-26. 시기별 4주 가구당 계란 평균구매량 변화



자료: Kantar Worldpanel Korea.

그림 26-26. 소비자의 계란 선택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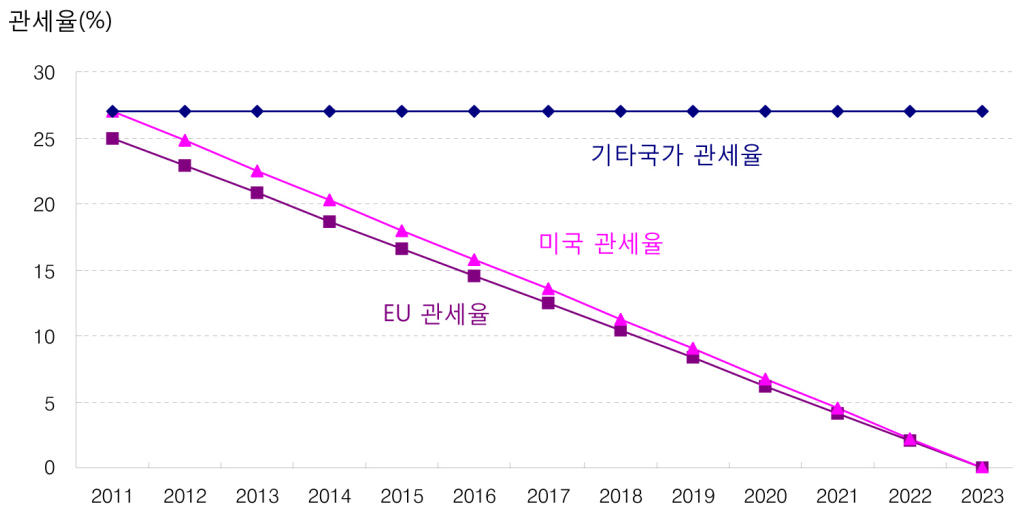
자료: 관측센터 소비자 조사(2012년 1월 6~9일 조사)

4.2. 계란 교역 여건 전망

- 한·EU FTA가 2011년 7월부터 발효되어 조란(구운란을 포함한 신선란 관세율 41.6%)은 15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되며, 난황(관세율 27%)은 13년, 종란(관세율 27%)은 10년에 걸쳐 관세가 점진적으로 철폐된다. 한·미 FTA가 2012년부터 이행될 경우, 조란은 15년, 난황은 12년, 난백(관세율 8%)은 5년에 걸쳐 관세가 점진적으로 철폐된다.

- 계란 가공품 수입물량은 주로 가공 식품(제과 및 제빵)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계란 가공품 수입물량이 국내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다 (2010년 0.4%). 따라서, FTA 발효가 국내 계란 산지가격과 소비자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 중국산 계란은 가공식품(구운란)으로 수입되고 있으며, 다른 국가에 비해 국내 접근성에 이점이 있다. 따라서 중국내 가축질병문제(HPAI 등)가 해결된다면 중국산 수입량은 현재보다 더 증가할 수 있다.

그림 26-27. 국가별 난황 관세율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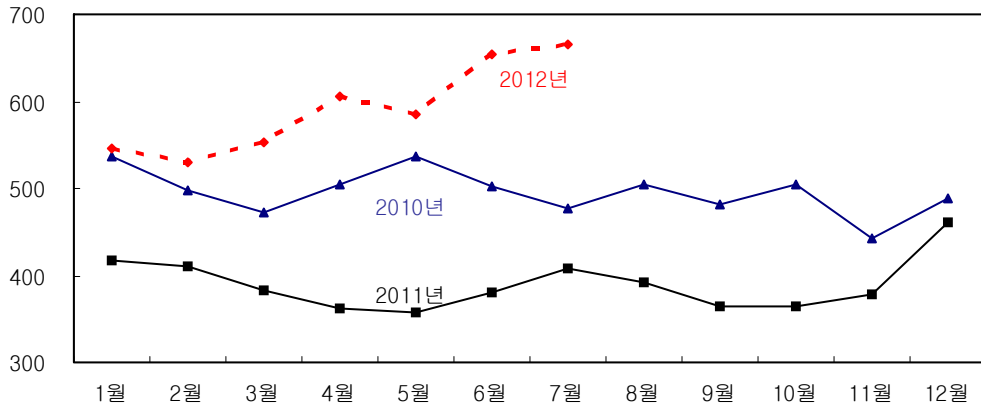


4.3. 산란계 사육과 계란 수급 전망

- 2011년 산란계 종계 입식 마리수는 66만 5천 마리로 전년보다 24% 증가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2012년 상반기 병아리 생산 잠재력을 추정한 결과, 2012년 1분기 잠재력은 전년 동기보다 34%, 2분기는 68% 높아 산란계 총 사육 마리수는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26-29. 병아리 생산 잠재력

병아리 생산 잠재력(천 마리)



자료: 관측센터 전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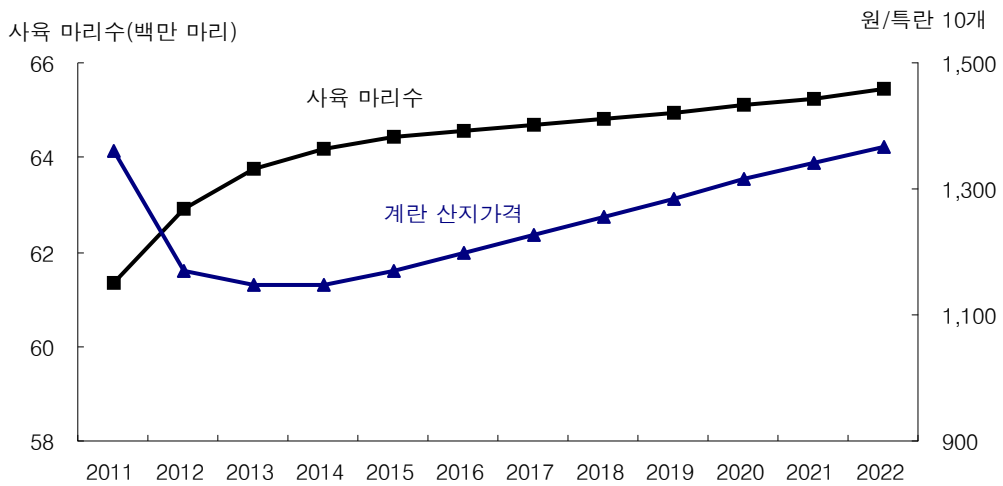
- 2011년 산란 종계 입식 마리수 증가에 따라 2012년 산란계 사육 마리수는 2011년 대비 2.5% 증가한 6,290만 마리로 전망된다. 향후 2013~2022년 산란계 사육 마리수는 계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산란계 사육 마리수 증가로 2012년 계란 생산량은 전년 대비 3% 증가한 59만 톤으로 추정되며, 계란 산지가격은 전년보다 크게 하락한 1,170원(특란 10개)으로 전망된다.
- 산란계 사육 마리수 증가로 생산량이 증가하여 2013년까지 가격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계란 수요량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산지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12년 1인당 계란 소비량은 전년 대비 2.8% 증가한 12.1kg으로 전망되며, 2013~2022년 1인당 계란 소비량은 소득 증가에 따른 지속적인 증가세로 전망된다.

표 26-30. 계란 수급 전망

	단위	2011	전 망			
			2012	2013	2017	2022
사육 마리수	만수	6,134	6,290	6,384	6,538	6,592
계란 생산	천톤	573.0	590.4	604.1	626.3	633.5
1인당 소비	kg	11.7	12.1	12.3	12.7	12.9
계란 산지가격	원/특란10개	1,361	1,170	1,147	1,204	1,345

주: 사육 마리수는 분기별 평균치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2011).

그림 26-30. 산란계 사육 마리수 및 계란 산지가격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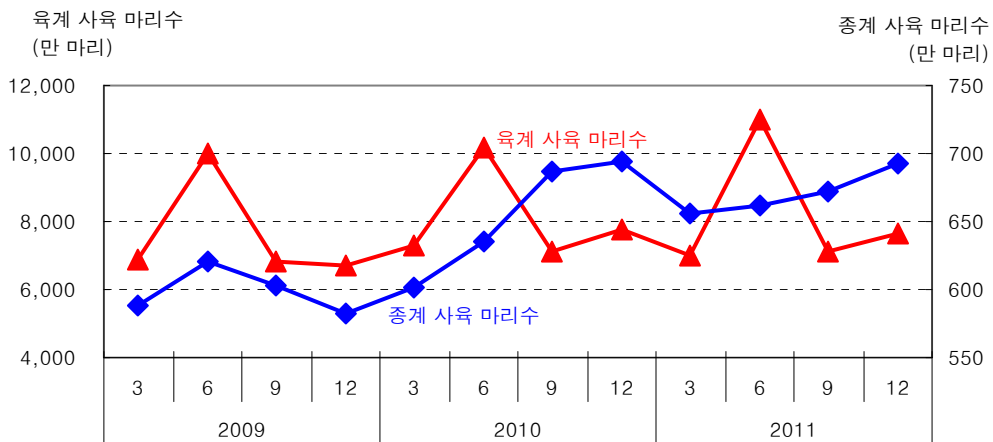
5 육 계

5.1. 육계 사육과 닭고기 수급 동향

5.1.1. 사육 동향

- 2010~2011년 원종계(GPS: Grand Parental Stock) 수입이 증가하여 육용 종계 입식 마리수는 2010년(668만 마리)보다 1.2% 증가한 676만 마리였다. 종계 입식 마리수 증가로 2011년 평균 종계 사육 마리수는 전년 대비 3.9% 증가한 674만 마리로 추정된다.
- 종계 사육 마리수 증가로 병아리 생산과 육계 사육 마리수가 함께 증가하여 2011년 평균 육계 사육 마리수는 전년보다 4.2% 증가한 8,424만 마리였다.

그림 26-31. 종계 및 육계 사육 마리수 동향



주: 1) 매년 3, 6, 9, 12월은 통계청 발표치.
 2) 2011년 12월 종계 사육 마리수는 관측센터 추정치.
 자료: 대한양계협회, 관측센터 추정치.

5.1.2. 닭고기 수급 동향

- 육계 사육 마리수 증가와 생산성 향상으로 2011년 도계 마리수는 전년 대비 4.8% 증가한 7억 6,000만 마리, 국내산 닭고기 생산량은 45만 5,200톤으로 추정된다. 환율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고, 2~4월 육계 산지가격이 상승, 5~7월 닭고기 무관세 수입 등의 영향으로 2011년 닭고기 수입량은 2010년보다 2.7% 증가한 10만 8,600톤이었다.
- 2011년 상반기에는 FMD로 인해 발생한 돼지고기 대체수요와 일본 방사능 유출 사고로 인한 수산물 대체수요로 닭고기 소비가 증가하였으나, 하반기 들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상반기 소비증가로 2011년 닭고기 1인당 소비량은 2010년보다 4.3% 증가한 11.2kg으로 추정된다.

표 26-31. 닭고기 수급 동향

단위: 천 톤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공급	424.9	445.6	452.8	486.7	547.4	573.0
생산	349.3	380.3	376.6	408.5	435.5	455.2
수입	75.6	60.0	70.2	70.6	105.8	108.7
이월	-	5.2	6.1	7.5	6.1	9.1
수요	424.9	445.6	452.8	486.7	547.4	573.0
소비	416.8	433.8	436.0	469.1	522.3	546.0
수출	2.9	5.7	9.3	11.5	16.0	13.0
재고	5.2	6.1	7.5	6.1	9.1	14.0
1인당 소비(kg)	8.6	9.0	9.0	9.6	10.7	11.2

자료: 농림수산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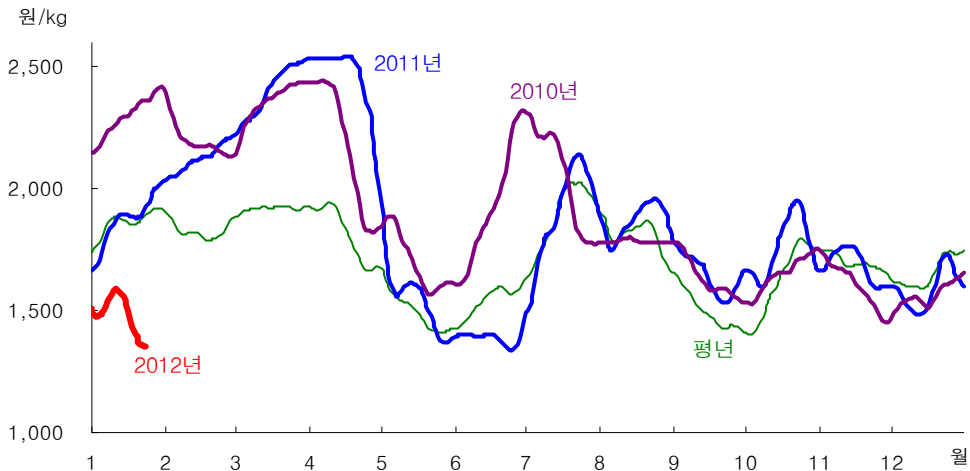
5.1.3. 닭고기 가격 동향

- 2011년에는 FMD와 HPAI, 일본의 방사능 유출사고, 닭고기 5만톤 무관세 수입 등으로 가격의 등락이 크게 나타났다. 2011년 평균 생체 kg당 육계 산지가격은 2010년(1,912원)보다 2.9% 하락한 1,856원이었다.
- 2011년 1~3월 이동제한으로 병아리 입식이 원활하지 못해 공급량이 감소하였다. 그리고 같은 시기 FMD로 돼지고기 대체수요가 발생하였고 4월에는 일본 방사능

유출사고로 수산물 대체수요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4월까지 육계 산지가격은 상승세를 보였다. 이후 5~6월 국내산 닭고기 생산량 증가, 닭고기 무관세 수입으로 가격이 크게 하락하였다. 5~6월 산지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2011년 상반기 육계 산지가격은 2010년 동기간(2,113원)보다 6.9% 하락한 1,968원이었다.

- 2011년 하반기(7~12월) 공급량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복 절기 수요와 일시적 공급부족 현상으로 산지가격은 전년보다 1.8% 상승한 1,775원을 기록하였다.

그림 26-32. 육계 산지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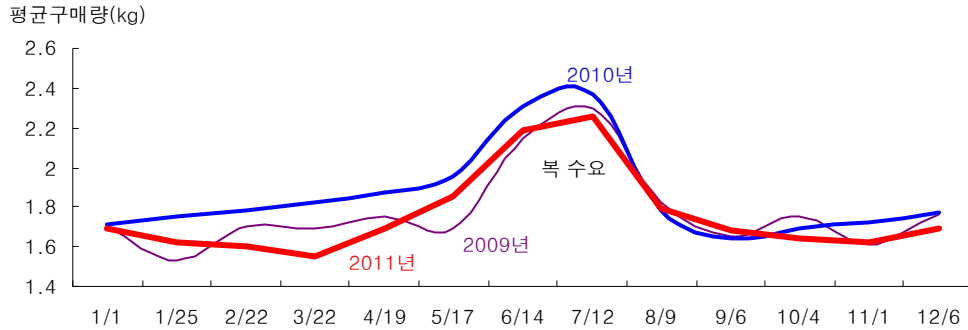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07~11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농협중앙회, 「축산물 가격정보」.

5.1.4. 닭고기 소비 패턴

- 8~9월 닭고기 소비가 전년보다 소폭 증가하였으나, 경기침체로 2011년 닭고기 소비는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계절적으로 복 절기 소비량은 증가하였으나 예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면서 2011년 가구당 4주 평균 구매량은 1.8kg으로 전년(1.9kg)보다 5.3%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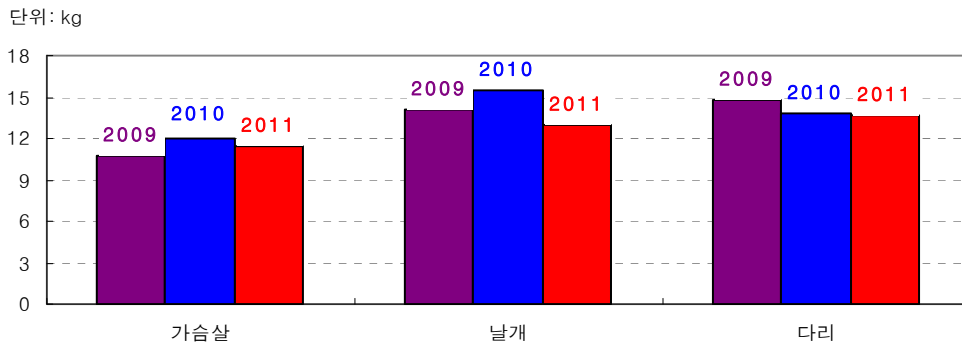
그림 26-33. 4주 평균 가구당 닭고기 구매량 변화



자료: Kantar Worldpanel Korea.

- 2008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던 부분육 구매량이 2011년 감소하였다. 닭가슴살은 2011년 구매량이 2010년(12.0kg)보다 5.3% 감소한 11.4kg이었으며, 닭날개는 전년(15.5kg)대비 15.8% 감소한 13.0kg, 닭다리는 전년(13.9kg)보다 1.3% 감소한 13.7kg으로 나타났다.

그림 26-34. 가구당 닭고기 부분육 구매동향



자료: Kantar Worldpanel Korea.

5.2. 닭고기 교역 여건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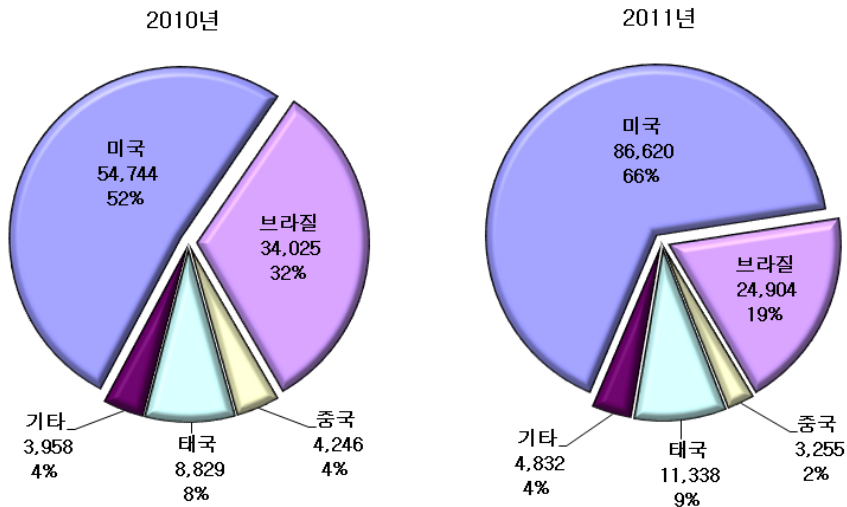
- 2~4월 높게 유지되었던 산지가격과 5~7월 물가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한 무 관세 수입의 영향으로 2011년 상반기 닭고기 수입량은 전년보다 증가하였다. 이후 환율 강세로 하반기 수입량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상반기 수입량

증가의 영향으로 2011년 닭고기 수입량(통관기준)은 전년보다 23.8% 증가한 13만 950톤이었다(검역기준 닭고기 수입량은 10만 8,600톤).

- 우리나라의 주요 수입 국가별 닭고기 시장 점유율은 미국 66%, 브라질 19%, 태국 9%, 중국, 2% 등이었다. 상대적으로 수입가격이 저렴한 미국산 닭고기 시장 점유율은 2010년보다 14%p 증가한 반면, 브라질산 닭고기 시장점유율은 13%p 감소하였다.

그림 26-35. 냉동 닭고기 국가별 수입량

단위: 톤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USDA 자료에 의하면 닭고기 소비량 증가로 2012년 중국의 닭고기 생산량은 전년 대비 4.5% 증가한 1,380만 톤, 브라질은 5.0% 증가한 1,360만 톤, EU는 1.4% 증가한 963만 톤으로 전망된다. 반면 미국은 전년보다 0.9% 감소한 1,660만 톤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2012년 세계 닭고기 생산량은 2011년보다 2.5% 증가한 8,307만 톤으로 전망된다.
- 수출량의 경우, 브라질이 전년보다 5.0% 증가한 347만 톤, 미국은 2.5% 증가한 304만 톤, EU는 1.8% 증가한 112만 톤으로 전망된다. 수입량의 경우 사우디아

라비아가 전년 대비 6.0% 증가한 88만 톤, EU는 1.4% 증가한 71만 톤, 일본은 4.2% 감소한 81만 톤으로 전망된다.

표 26-32. 주요국의 닭고기 수급 및 수출입 전망

단위: 천 톤

	생산량				소비량		
	2011	2012	증감률(%)		2011	2012	증감률(%)
미국	16,757	16,603	-0.9	미국	13,890	13,606	-2.0
중국	13,200	13,800	4.5	중국	13,020	13,605	4.5
브라질	12,954	13,602	5.0	브라질	9,655	10,138	5.0
EU-27	9,500	9,630	1.4	EU-27	9,100	9,220	1.3
기타	28,622	29,439	2.9	기타	34,236	35,184	2.8
계	81,033	83,074	2.5	계	79,901	81,753	2.3
	수출량				수입량		
	2011	2012	증감률(%)		2011	2012	증감률(%)
브라질	3,300	3,465	5.0	사우디	830	880	6.0
미국	2,966	3,039	2.5	일본	840	805	-4.2
EU-27	1,100	1,120	1.8	EU-27	700	710	1.4
태국	460	500	8.7	멕시코	590	625	5.9
기타	1,327	1,472	10.9	기타	5,039	5,286	4.9
계	9,153	9,596	4.8	계	7,999	8,306	3.8

주: 2011년은 추정치이며, 2012년은 전망치임.

자료: USDA, FAS, Livestock and Poultry: World Markets and Trade(Oct, 2011).

- 2012년에는 미국과 브라질 등 주요 닭고기 수출국들의 수출량이 2011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USDA), 환율도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어(IHS Global Insight) 국내 수입량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산 닭고기 공급량 증가로 2012년 수입량은 2011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12년에는 환율이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입 닭고기 도매원가는 전반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미국산 닭고기 도매원가는 kg당 1,880원, 브라질산 3,554원, 덴마크산 2,886원으로 전망된다.

- 한·미 FTA 및 한·EU FTA 체결 내용 및 IHS Global Insight의 환율 전망치와 관세율 변화 등을 이용하여 2022년까지 국가별 도매원가를 추정한 결과, 미국산 닭고기 가격은 점차 하락하고 브라질산 닭고기 가격은 상승하여 가격 격차는 보다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미국산 닭고기 국내 시장점유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 26-33. 수입 닭고기 가격동향과 전망

	2011		전망		
			2012	2017	2022
환율 (원/US\$)	1,102		1,092	986	991
수입단가 (\$/kg)	미 국	1.3	1.4	1.5	1.6
	브라질	2.5	2.5	2.8	2.9
	덴마크	2.1	2.1	2.3	2.4
관세율 (%)	미 국	20	18	8	0
	브라질	20	20	20	20
	덴마크	20	16	6	0
도매원가 (원/kg)	미 국	1,925	1,880	1,717	1,700
	브라질	3,583	3,554	3,521	3,737
	덴마크	2,956	2,886	2,632	2,648

주: 1) 2011년 이후 환율은 IHS Global Insight 전망치.

2) 2011년 수입 단가는 관세청 수입 실적을 이용하여 계산함. 2011년 이후 수입단가는 미국 FAPRI 2010 전망치를 이용하여 CIF 기준가격으로 환산함.

3) 미국과 덴마크는 FTA 이행으로 관세율 20%를 10년에 걸쳐 철폐함(한·미 FTA는 2012년 발효, 한·EU FTA는 2011년 발효).

4) 브라질은 현행 관세율이 그대로 유지됨.

5) 도매원가는 국제가격에 환율, 관세, 부대비용, 이윤 등을 포함한 가격임.

자료: 관측센터 전망치.

5.3. 육계 사육과 닭고기 수급 전망

5.3.1. 중기 선행관측

- 육용종계 입식 마리수를 이용하여 병아리 생산 잠재력을 추정한 결과, 2011년 종계 입식 마리수 증가로 2012년 1~6월 병아리 생산 잠재력은 전년 동기간보다 3.3%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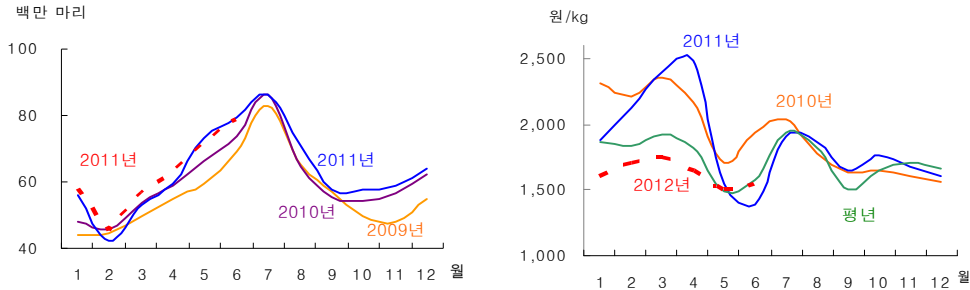
표 26-34. 병아리 생산잠재력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2012년	107.1	103.9	106.3	112.6	117.9	123.9
2011년	100.0	99.7	104.5	110.5	117.0	119.1
증감률(%)	7.1	4.2	1.7	1.9	0.8	4.1

주: 육용 종계 생산성이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 7개월전 10개월 누적치를 이용하여 계산하였으며, 2011년 1월 병아리 생산 잠재력을 100으로 함.
자료: 관측센터 추정치.

- 병아리 생산 잠재력 증가로 육계 사육 및 도계 마리수는 2012년 6월까지 전년 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11년 상반기에 발생했던 대체수요가 소멸되고, 기타 닭고기 수요 증가요인도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2012년 상반기 닭고기 수요는 2011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파의 영향으로 종계 및 육계 생산성 저하가 발생할 수 있으나, 종계 입식 마리수의 증가로 국내산 닭고기 공급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2012년 2~4월의 육계 가격은 전년 동월보다 15~35% 하락한 1,600~1,800원으로 추정된다. 이후 5~6월 산지가격은 가격 하락이 컸던 전년보다는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6-36. 2012년 상반기 도계 마리수 및 육계 산지가격 전망



자료: 관측센터 추정 및 전망치.

5.3.2. 중장기 전망

- 한·미 FTA 및 한·EU FTA 이행으로 닭고기(냉동)의 관세율이 20%에서 10년간 단계적으로 감축되는 것을 가정하였다(한·미 FTA는 2012년 발효, 한·EU FTA는 2011년 발효).
- 종계 입식 마리수 증가로 2012년 1~6월 병아리 생산 잠재력은 2011년 동기간보다 3.3%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추세는 2012년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2012년 평균 육계 사육 마리수는 2011년보다 3.5% 증가한 8,718만 마리로 전망된다.
- 인구증가와 육류 소비량 증가로 닭고기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 육계 사육 마리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 9,359만 마리, 2022년 9,682만 마리로 전망된다.
- 사육 마리수 증가로 2012년 국내 닭고기 생산량은 3.9% 증가한 47만 3,000톤으로 전망되고, 이에 따라 닭고기 수입량은 전년보다 11.9% 감소한 9만 6,000톤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 환율 하락과 한·미, 한·EU FTA 이행에 따른 관세 인하로 수입 닭고기 도매 원가는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내 생산량 증가로 국내가격이 예년에

비해 낮게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어 수입량은 2017년 10만 5,000톤, 2022년 11만 3,000톤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 2012년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은 전년보다 1.3% 증가한 11.3kg, 2017년과 2022년에는 각각 12.3kg과 12.8kg으로 전망된다.
- 닭고기 수입량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닭고기 생산량 증가 영향으로 2012년 생체 kg당 육계 산지가격은 전년 대비 6.9% 하락한 1,729원으로 전망되고 2017년은 2,037원, 2022년은 2,283원으로 전망된다.

표 26-35. 2012년 닭고기 수급 전망

	단위	2011	전망		
			2012	2017	2022
사육 마리수 ¹⁾	만 마리	8,424	8,718	9,359	9,682
생산	천 톤	455	473	511	530
수입	천 톤	109	96	105	113
1인당 소비 ²⁾	kg	11.2	11.3	12.3	12.8
산지가격 ³⁾	원/생체kg	1,857	1,729	2,037	2,2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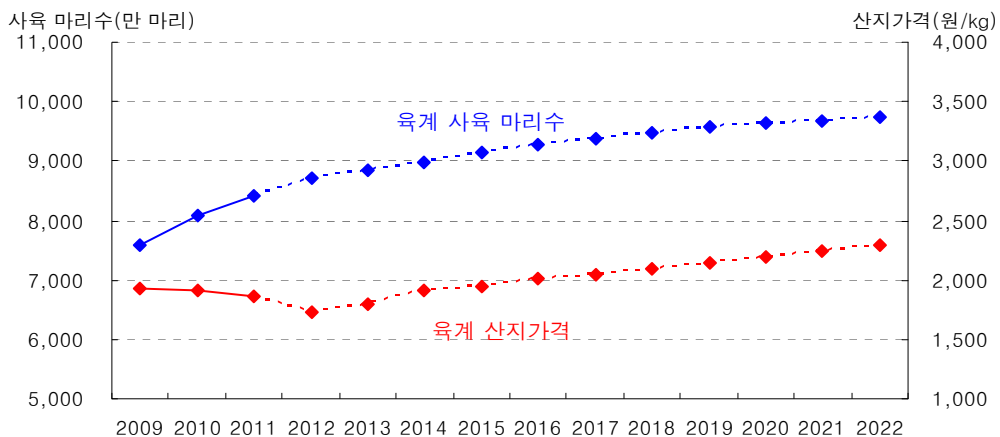
주: 1) 사육 마리수는 연평균임.

2) 1인당 소비량은 정육기준임.

3) 산지가격은 명목가격임.

자료: 관측센터 전망치(KREI KASMO 2011).

그림 26-37. 육계 사육 마리수와 가격 전망



자료: 관측센터 전망치(KREI KASMO 2011)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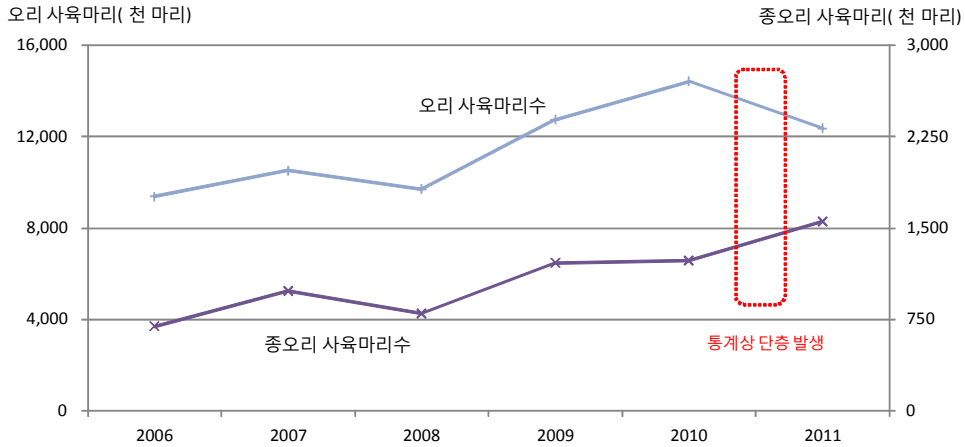
오 리

6.1. 오리 사육과 오리고기 수급동향

6.1.1. 사육 동향

- 오리고기 소비증가로 오리 사육 마리수는 2000년 이후 연평균 11% 증가하였다. 2011년 오리 연평균 사육 마리수는 1,236만 마리였으며, 이중 종오리는 155만 마리였다.
- 2011년 초 발생한 HPAI로 상당수의 종오리가 매몰 처분되면서 2011년 사육 마리수 변동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3월 오리 사육 마리수는 857만 마리로 감소하였으나, 6월 1,522만 마리로 급격히 증가한 이후 9월 1,293만 마리, 12월 1,274만 마리로 일정수준을 유지하였다.
- F1 종오리 입식이 금지되면서 기존의 F1 종오리 사육물량을 PS로 대체하기 위한 종오리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다. 2011년 종오리 수입 마리수는 72만 마리(전년 대비 71.5% 증가)였으며, 사육 마리수 증가에 따라 2011년 사료 생산량은 전년 대비 27.7% 증가한 6만 6천 톤이었다.

그림 26-38. 오리 및 종오리 사육 마리수



주: 2006~2010년은 해당년 12월 사육 마리수(농림수산식품부, 기타가축통계)이며, 2011년은 연평균 사육 마리수(통계청, 가축동향)이므로 통계상 단층이 발생할 수 있음.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기타가축통계」, 통계청 「가축동향」

6.1.2. 오리고기 수급 동향

- 도압 마리수 증가로 2011년 오리고기 생산량은 전년 대비 14.7% 증가한 13만 2천 톤, 수입량은 5,964톤으로 추정된다. 생산량 및 수입량 증가로 1인당 소비량은 전년 대비 20.8% 증가한 2.9kg으로 추정된다.

표 26-36. 오리고기 수급동향

단위: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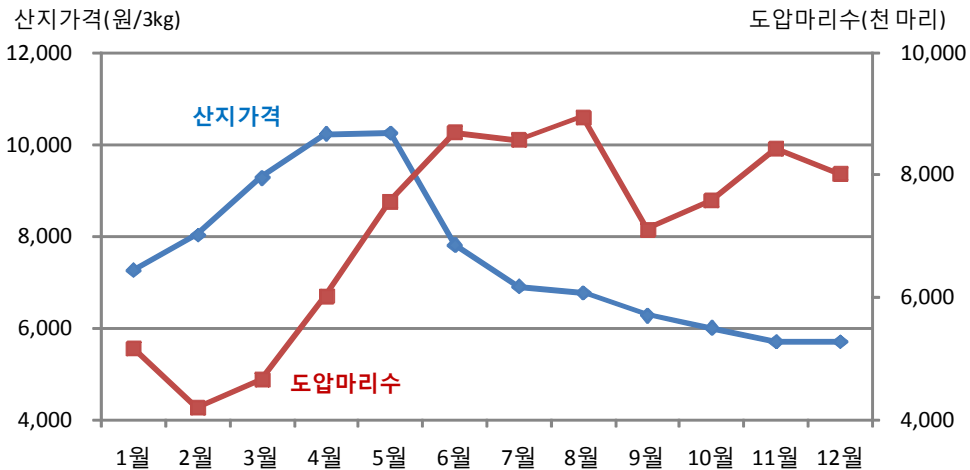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공급	생산	60,209	75,270	84,818	102,597	115,204	132,126
	수입	83	1,570	338	34	2,395	5,964
	계	60,292	76,840	85,156	102,631	117,599	138,090
수요	소비	59,933	76,818	85,156	102,629	117,324	137,631
	수출	359	22	0	2	275	459
	계	60,292	76,840	85,156	102,631	117,599	138,090
1인당 소비(kg)		1.2	1.5	1.8	2.1	2.4	2.9

주: 2011년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추정치이며, 2011년 수입량은 정육·지육 및 열처리 가공품 포함임.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6.1.3. 오리고기 가격 동향

- 2011년 초 HPAI 발병에 따른 매몰처분으로 종오리 사육 마리수가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병아리 생산 및 사육 마리수가 감소하면서 오리고기 가격은 5월 10,248원/3kg까지 상승하였다.
- 가격이 상승하면서 도압 마리수는 6월까지 크게 증가하였다. 도압 마리수가 전년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산지가격은 2011년 6월 이후 약세가 유지되었다. 2012년 1월(1~27일) 평균 오리가격은 5,534원/3kg이다.
- 이는 사육 마리수 증가로 오리고기 공급량은 늘어난 반면, 복절기 호우 및 기상 악화에 따른 여름철 소비 감소, 하반기 경기 침체에 따른 전반적인 소비 감소 등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림 26-39. 2011년 오리 산지가격 및 도압마리수 변화 추이



자료: 한국오리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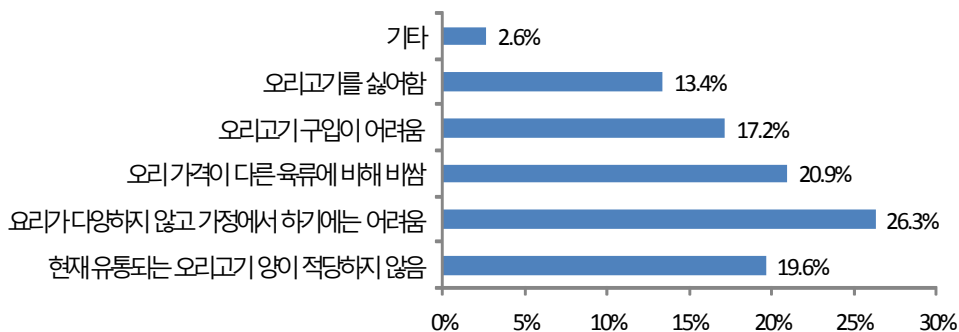
6.1.4. 오리고기 소비 동향

- 현재 가정내에서 오리고기 소비가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응답자의 26.3%가 요리가 다양하지 않고 가정에서 요리하기에는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으며, 20.9%가 오리 가격이 타 육류에 비해 비싸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19.6%의 응답자는 현재 유통

되는 오리고기의 양이 적당하지 않다(판매 중량이 너무 큼)고 응답하였으며, 17.2%는 오리고기 구입이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 따라서 가정내 오리고기 소비 증진을 위해 오리고기 요리법의 적극적인 홍보 및 보급과 함께 현재 지육위주로 유통되고 있는 오리고기를 소비자의 기호에 맞게 부위별로 판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림 26-40. 가정내 오리고기 소비 부진 원인



자료: 농업관측센터 소비자 조사(2012년 1월 6~9일)

6.2. 오리고기 교역여건 전망

- 우리나라의 오리고기 자급율은 95% 이상으로 국내 생산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소비가 증가하면서 수입량도 소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대만산 오리고기는 주로 정육형태로 수입되며, HPAI 청정국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중국산은 열처리 가공육(훈제) 위주로 수입되고 있다.
- 2011년 오리고기 수입량 1,113톤 중에서 대만산은 전체 수입량의 97.2%인 1,082톤이었으며, 그 외 미국과 프랑스산이 소량 수입되었다.

표 26-37. 국가별 오리고기 수입량 및 점유율

단위: 톤

	대만		미국		프랑스		전체	
	수입량	점유율	수입량	점유율	수입량	점유율	수입량	점유율
2009	76	79.8%	9	9.8%	9	9.4%	96	100.0%
2010	320	87.9%	9	2.6%	15	4.2%	365	100.0%
2011	1,082	97.2%	14	1.3%	17	1.5%	1,113	100.0%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현재 오리고기 관세율은 18~22.5%이나, 한·미 FTA 발효로 냉장육은 10년, 냉동육은 12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된다. 또한 한·EU FTA 발효로 냉장육은 10년, 냉동육은 13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표 26-38. FTA별 오리고기 관세 변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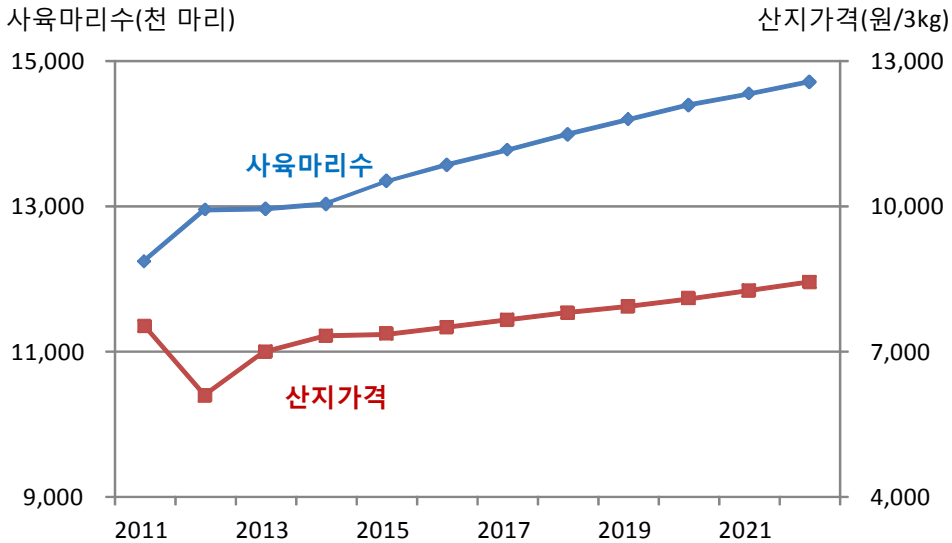
품목	현행 관세율	한·미 FTA		한·EU FTA	
		냉장육	냉동육	냉장육	냉동육
오리고기	18~22.5%	10년 철폐	12년 철폐	10년 철폐	13년 철폐

자료: 외교통상부

6.3. 오리 사육과 오리고기 수급 전망

- 2012년 하반기부터 국내 원종오리 농장에서 종오리가 공급될 예정이다. 따라서 그동안 수입에 의존해왔던 종오리 수입실적은 올해보다 감소한 26만 마리에 그칠 것으로 판단되지만, 전체적인 종오리 공급 규모는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
- 종오리 사육 마리수 증가로 2012년 오리 사육 마리수는 전년보다 5.9% 증가한 1,296만 마리로 전망된다. 또한 현재 냉동비축물량(1,200~1,500만 마리, 업계추정)이 많아 오리고기 공급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공급증가에 따라 2012년 오리 산지가격은 전년보다 18.9% 하락한 6,000~6,200원으로 전망되며, 1인당 오리고기 소비량은 전년보다 3.4% 증가한 3.0kg으로 예상된다.

그림 26-41. 오리 사육 마리수와 가격 전망



자료: 농업관측센터 전망치(KREI-KASMO 2011)

- 중장기적으로 소득 증가 및 오리고기 선호로 오리 사육 마리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 1,398만 마리, 2022년 1,478만 마리로 전망된다. 그에 따라 생산량은 2017년 14만 9,158톤, 2022년 15만 6,947톤으로 예상된다.
- 생산량 증가에 따라 1인당 오리고기 소비량은 2017년 3.1kg, 2022년 3.3kg으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산지가격은 2017년 7,569원/3kg에서 2022년 8,326원/3kg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6-39. 오리고기 수급전망

	단위	2011	2012	2017	2022
사육 마리수	천 마리	12,240	12,964	13,980	14,776
생산	톤	132,126	139,217	149,158	156,947
수입	톤	5,964	5,577	3,590	3,988
1인당 소비량	kg	2.9	3.0	3.1	3.3
산지가격	원/3kg	7,527	6,000~6,200	7,569	8,326

주: 수입량은 정육·지육과 열처리제품의 합임.

자료: 농업관측센터 전망치(KREI-KASMO 2011)

- 2011년 하반기부터 오리 산지가격은 생산비 이하에서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냉동 비축물량 및 오리고기 생산량이 많아 이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계열업체에서는 일정물량을 자율 감축하여 산지가격을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
- 또한 오리 사육 농가에서는 생산성이 떨어지는 F1 종오리 입식 및 사육을 근절해야 하며 지나친 병아리 입식을 삼가야 할 필요가 있다.